朝鮮日報 夕刊 三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解散後의政界

新黨樹立運動不徹底

一

會期最終日에 議會解散斷行이라는것은 前例가업을뿐 아니라 一般國民 至於 政黨 政客까지도 이러한 結果는 秋毫도豫想치못하엿든 突然한『爆彈解散』이니만치 解散以後의 政局推移는 一般國民은勿論 海外諸國에서까지 極히注目하고잇다。林內閣은 政黨出身의 入閣을 拒否하엿슴에 不拘하고 今會期를 通하야 比較的政黨側에 協力的態度를 表示하다가 卅八億餘의 膨大豫算을 成立시킨直後 會期最終日에 와서 議會解散을 斷行하엿슴으로 一般은 그處事가 計畫的이오 戰術的이라는 直感을 느끼게되엿다。그리고 一般이 이러한 直感을 갓게되니만치 計畫的인 이處事에 伴한 政府當局의 繼續的意圖가 具現되리라는 생각으로 局面展開를 注視하게됨은 當然한現象이라할것이다。

二

『政府는 時局의重大性及 內外情勢가 容易치안음에鑑하야 誠意로써 法案審議에 當하여온同時에 거이前例업는 長期間의會期延長을하엿스나 政黨側의態度는 아무리 好意的으로 보드래도 誠意를 缺한點이 만타』는 理由下에 第七十議會가 解散되엿다。그러나 政黨側으로보면 이것은 도무지理解할수업는말이다。第七十議會로 말하면 會期中에 停會、內閣更迭의 暴風이이러 會期가 크게短縮되엿슴에 不拘하고 政府는 八十餘件의 多數重要法案을 提出하엿는데 政黨人을 排擊한內閣이니만치 技術的으로 熟練치못한點이만헛고 게다가 專任大臣政務官의不足等으로 審議가不捗되엿든것은 當然以上의 當然한歸結로 그責任은 政黨側에잇지안코 政府當局에 잇다는것이 政黨側의 主張이다。

三

如何間 林內閣은 政黨側에 誠意가 不足하다는 理由下에 議會解散을 斷行하고 國民의 公正한 良心에 呼訴하야 政界刷新을 企圖하겟다는것이 그看板的理由다。그러므로 政府는 이번 總選擧에 臨함에잇서서 어떠한 形態로든지 當局의 處事를 正當化하는 國民의投票가 集中되기를 必要하게되엿다。여기서 新黨樹立問題가 擡頭하게된 것이다。林首相은 大命拜受以後부터 新黨樹立問題에 多少因緣이 잇섯고 또 議會解散直前에 二三人의 新黨樹立運動要人과 會談한事實이 잇섯슬뿐아니라 解散斷行後 今後의 時局對處方針에잇서 政府는 新黨問題에 關하야『潑溂的活動如何는 말할수업스나 新黨이 樹立되여 政府와 握手하려한다면 政府로서는 勿論共鳴協助하여 나갈方針이다』라고 暗暗히 新黨出現을渴望하는 念願을 表하엿스며 他面 政界一部에서는 以上諸情勢로보아 新黨出現을 必然視하고 新黨所屬代議士는 百五十名가량되리라는 觀測까지 내리고잇다。그러나 吾人의觀測에依하면 林內閣의 議會解散裏面에 어떠한計畫的意圖이 잇섯는지는모르나 비록 플랜이잇섯다하드래도 그것이 用意周到치못하엿다는것은 突然的解散에 依한 準備未及으로 新人出馬가 極히적어 當局이 要望하는 議會革正이 疑問視되는點으로 明瞭히알수잇다。

四

視角을 달리하여 林內閣의 이번處事를 檢討할때에 一般으로서는 理解할수업는 矛盾이 潛在하여잇다。卽 政黨側主張이 正當視되는境遇에는 旣成政黨에의 投票集中으로 國民의意思를 알수잇지마는 政府側主張은 假使그것이 正當視된다하드래도 與黨을가지지못한 現政府에는 이것이 表現될 方途가업는까닭이다。

新黨派側에서는 議會開會劈頭부터 解散을主張하엿스나 이것은 現政府를 支持하는意味에서의 解散主張이아니므로 이번總選擧에 無產派側의 大進出을보게된다고 이것으로곳 政府當局의 이번處事가 正當化될것이아님은 勿論이다。一言으로말하면 與黨업는政府로서 議會解散을 斷行한다는 것은 懲罰的意味以外에는 아무意義가업는것이다。그리고 昨今新黨樹立問題가 相當히 物議되지마는 假使 成立된다하드래도 政局을 左右할만한 强力的大政黨이 될수업다는것은 明若觀火의事實이오 結局 無產黨의 大進出을보는以外에 政民旣成政黨의 優勢가 거의約束되어잇는 事實이니만치 林內閣의『爆彈解散』은 無意味로 終結될것이다。

香港防備擴張決定

一億二千萬弗로(香港弗)

新嘉坡와함께 極東英國空軍根據地로

香港政廳計畫承認

森嚴한軍備로裝飾되는香港

【上海二日發同盟】在香港英國軍事當局이香港政廳에要求하고잇든 香港防備擴張案은 香港政廳의 承認決定을 어더 도디어工事에着手한다는旨를 二日在香港英國官憲으로부터非公式으로 發表되엿다 右防備擴充의總額一億二千萬香港弗의巨額을 投하야 香港및九龍半島租借地의軍事施設을 强化코저하는것으로

一、마레스타시레―半島에現在築造中인砲台外에 또砲台一基를築造할것
一、高射砲隊를現在의二倍로强化할것
一、陸軍部隊의增强
一、空軍의整備大擴張等을中心으로한다 이 大擴張計畫이 完成하는날에는 新嘉坡와더부러 極東에잇는 英國空軍의 大根據地로될것이다

上海附近一帶에 國府兵力增强

上海停戰協定으로禁止區域 警察團이란名目下에

【上海特電】國民政府는 上海停戰協定存在에依하야 南京을中心으로한 中國의 中心區域인 近畿地方의 國防力이 極히 薄弱化한다는見地로부터 上海停戰協定을 考慮하고잇든바 또 經濟上軍事上의 要地인 上海附近의 軍事設備를强化코저 右地域內의 協定에依하야 締結된 三千名의 保安隊外에 警察團의 名目下에 駐兵隊一千五百名 警察隊四千名을 配置하고또 憲兵團을 組織하엿다 此等은 모두 輕機關銃 輕戰車等 近代的裝備를시켜 正規軍으로서 活動할수잇는 武力을 備하야 交戰準備를 整備하고잇다 日本濟中當局은 停戰協定에 反하는 中國側의 措置를 極히 重大視하고 近近適當한方法에依하야 停戰委員會를召集하야 中國側에 對하야 嚴重한 注意를 喚起할터이라한다

國際勞働總會 日本代表決定

【東京電話同盟】來六月三日부터 쥬네브에서 開催되는 第二十三回國際勞働總會에 出席할 日本政府資本家 勞働各代表및 顧問等은 二日閣議에서 左와如히決定하엿다

▲日本政府代表委員 國際勞働機關日本事務所長 北岡壽逸
▲代表委員顧問 內務事務官 永野若松
同 社會局事務官 大橋武夫
同 社會局技師 井口幸一
同 地方事務官 大野連治
▲代表委員附 社會局屬 竹倉太郎
同 國際勞働機關日本事務所書記 武藤文雄
▲使用者側代表委員 全國產業團體聯合會常務理事 膳桂之助
▲代表委員顧問 東洋紡績株式會社取締役 作川[illegible]太郎
同 大日本紡績株式會社第一課長 川上太郎
▲勞働者代表委員 海員協會會長 小泉秀吉
同 日本勞働組合會議書記長 上條愛一
同 日本勞働總同盟主事 內田文市

또同會議議項은左와如하다
一、纖維工業에잇서서의 勞働時間短縮問題
二、建築工事에 使用하는 勞働者의 安全規則問題
三、公共土木事業問題
四、印刷製本業의 勞働時間短縮問題
五、化學工業의 勞働時間短縮問題
六、工業의最低年齡條約의改正問題
七、非工業의 最低年齡條約改正問題

黑龍江下流滿洲領 蘇聯、武力占領!

滿洲國抗議를一蹴코

【黑河特電(三日)】黑河下流下倫山上流三軒 國境線黑龍江滿洲國領中島는從來 蘇聯側이不法으로占領한데對하야 滿洲側으로부터 十數回나 抗議를 繼續한 셈인데 요즘 蘇聯側은 同島를 武力으로 占領하엿다 이에對하야 卅日午後 駐黑河外交部辦事處主事廣涉氏가 駐黑河蘇聯領事마르레노프氏를訪問하고 斷乎同島에잇는 蘇聯兵의撤兵을 要求한바 마르레노프氏는 滿洲國側의抗議를 一蹴하고 一戰을하더라도 不辭한다고 放言하엿다

그런데 黑龍江中의 一千餘가되는 島嶼歸屬에關하야는 滿蘇國際條約上 明文이업스나 일직이 네르친스크條約은 露中國境은 스타노보이山脈으로서하고 愛琿條約으로서 黑龍江左岸地區를 露領으로 規定한데鑑하야 國境線黑龍江中의 一千餘의 島嶼는 當然滿洲國領임에不拘하고 蘇聯側의 姑息한 傍若無人의 態度에對하야 現地各機關은 斷乎한決意를보이고잇다

日中國交上에 新生面展開乎

五相會議에並行 對中問題審議會를設置

官民各方面의意見을聽取코저

佐藤外相의新意圖

【東京電話同盟】佐藤外相은 日本外交의重點을 對中政策에두고 그具體案을決定키爲하야 近近五相會議를開催할豫定인데 이와同時에 官民各方面의意向을 널리徵할必要가잇스므로 右五相會議와並行的으로 日中關係研究의常設機關으로서 對中問題審議會를 設置할方針이다 右審議會는 通商審議會와同樣 官制에依하지안코 委員組織으로하되 外務、海軍、大藏、商工、農林、拓務의關係各省局部長 日華貿易協會를爲始하야 民間側關係者及 中國에對한學識經驗者를 널리網羅하야 對中政策確立에資코저 各方面의腹藏업는意見을徵하는同時에 從來자칫하면 日中交涉上 여러가지 不利를意味한 對中政策에對하야 擧國的指示下에 對中政策遂行에 當코저할意向이라한다 如斯한佐藤外相의意圖는 日中外交上一新生面을開拓할것이라고 期待되는

(寫眞은 佐藤外相)

政友代行委員 前代議士를招待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鳩山、前田、島田、中島의代行委員은二日午後六時부터 芝三緣亭에 前代議士를 招待하고 解散後의政戰對策을 講究코저 晩餐會를열엇는데 席上鳩山氏로부터 左와如한 人事가잇섯다

今回解散은 全然權力의濫用이다 我等은 茲에惜別하지아니하면아니되나 一個月後에는 再次會見할수잇슬것이라고 確信한다 我等이此際非立憲的인 現內閣과 一戰하는것은 明朗한立憲政治를 行하게될것이라고思함으로 立憲政治를 爲하야 大奮鬪하고저하는바이다

保守的米大審院 改革威脅에轉向?

團體契約權、農民救濟法等을 違憲이아니라고判決

【華府發電】米國聯邦大審院은卅九日 다음諸件에對하야 判決을 내리엿는데 右判決은 大審院이 從來부터 取하여오든 傳統的立場을一擲하고 新時代에 傾應코저한것으로 大審院改革이 米國朝野의大問題로되어잇는此際 非常한注目을 끌게되엿다

一、一九三四年의 鐵道勞働法은 違憲이아니라判決
右는 鐵道勞働法에依한 團體契約權은 違憲이라고하는 버지니아鐵道會社의 提訴에 依한것인데 大審院은 滿場一致로 同法의合法性을認定하엿다

一、新프레자=렘케法은 違憲이아니라判決
同法은 農民救濟를 爲하야 農地가 抵當流失되는것을 三年間延期할것을 骨子로한것인데 原判決은 一九三五年大審院에依하야 違憲이라고 判決한것인데 이것을 修正하야 立法化한것이다

一、女子의 最低賃銀制를 定한 華盛頓州法의 合憲性을 認定한것
大審院은 五票對四票의差로서 右判決을 내리엿는데 이것은 從來 大審院의 方針을 고친것으로서 齊之院長自身 判決要旨에 前判決以後經濟情勢에 變化가 잇다고하엿다

大角檢閱使關西行

【東京電話同盟】今年度海軍特命檢閱使大角大將은 檢閱使附近藤少將以下十九名을帶同 二日午後三時 東京驛發西下하엿는데 三日 長崎로부터 軍艦妙高에乘艦 長谷川中將의引率하는 第三艦隊의 各艦隊部隊檢閱次로 出發할터이다 一行은 四月六日 靑島發 十一日까지上海 十三日부터 十八日까지九江、漢口 各地(그동안「栂」에乘艦「栗」隨伴함) 四月二十三日부터二十五日까지 廈門에轉하야 檢閱을 行한다 또上部의 檢閱使附를宜昌、廣東等에分派하야 同地軍艦을 檢閱케할터이다

各派立候補 二日午後九時現在

【東京電話同盟】二日午後九時現在

	合計	新	前	元
民政黨	四一	九	三一	一
政友會	二七	七	一二	八
昭和會	一	一	―	―
社大	一八	九	八	一
國同	三	一	一	一
中立	一八	一〇	七	一
小派	六	五	一	―
合計	一一四	四二	六〇	一二

二日申請 四十九

外相、對蘇方針 大修正斷行乎

省外非難을折衷코저

最近日蘇間의關係는 더욱 複雜하야저서 그推移는 重大視되게되엿는데 이에隨伴하야 前段佐藤外相이議會에서 言明한 對蘇外交方針은 다시檢討를 加하게되엿는데 如斯한 消極的外交方針은 아직日蘇間의 諸關係가 險惡化하지아니한때이면 몰라도 今日과가튼 險惡化한 外交關係下에서는 消極的方針下에 斷乎한 手段을 取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고하고 佐藤外交에 全面的反對氣勢가濃厚하게되엿스며 또極東에잇는 日蘇諸懸案解決에關하야 外務省首腦部間에 協議한 折衝方策에도 顯著히 從來外相이 抱懷한 指針보다는 轉回한것이 看取되엿스므로 省外의 非難과 折衝의現實과 相伴하야 所謂佐藤外交의 對蘇方針은 急旋回할밧게업다고 觀測된다 이에對하야 外相이 如何한 意圖下에 善處할가가 重視되여 消極的으로부터 積極的折衝에 옮길것이라고 推測되나 實際的으로는 總選擧後의 政情安定後外交審議의 機關設立을기다리여決定될것으로보인다

宇垣大將京都着

【京都電話同盟】二日午後一時二十分京都에들어간 大將은令息令孃同伴 京都市內를 스피―드行脚한後 午後四時半宿舍 近太旅館에들어갓는데 同夜는 京都東에잇는 [illegible]를 遊覽하엿다 또同大將은左와如히말한다

二十七日朝鮮을 出發한後 子女들과함께 鄕里에 省墓도 하고 各地를 스피드旅行도하엿다 今回의 議會解散에 依하야 政府는 새로운 與黨을만들지 아니하면 解散의 意義가업다고 思한다 新黨派問題에 對하야는 現政府에서 누구나오는것이조치안흔가 鄕里兩山縣地에서 余의 進退問題가 傳한다는말은 數日前에 자긔들이스스로나 現在아직누구에게 求談을바더 본일이업고 또그런것은 全然생각하지도안햇다 萬若 그런 風說이잇다면 余에對한 好意일것이다 京都에는 二、三日間滯在하다가 東京에들어갈터이다

또同大將은 四日午後歸京할豫定이다

歷代內閣議會解散表

	內閣名	解散理由
明治二四·一二·二五	松方內閣	軍艦費其他否決
二六·一二·三〇	伊藤內閣	對外關係振肅
二七·六·二	同	失政上奏案
三〇·一二·二五	大隈內閣	內閣不信任案
三一·六·一〇	伊藤內閣	增稅案否決
三五·一二·二八	桂內閣	海軍擴張費豫算否決
三六·一二·一一	同	對露外交對策上奏文
大正三·一二·二五	大隈內閣	朝鮮增師案否決
六·一·二五	寺內內閣	內閣不信任案
九·二·二六	原內閣	普選法案
一三·一·三一	淸浦內閣	內閣不信任上奏
昭和三·一·二一	田中內閣	內閣不信任案
五·一·二一	濱口內閣	與黨少數
七·一·二一	犬養內閣	與黨少數
一一·一·二一	岡田內閣	議政運用不圓滑
一二·三·三一	林內閣	議會刷新

八面鋒

◇議會는 解散해노코 重要政策은緊急勅令으로 施行하리라고。
◇爲先 製鐵事業에關한것을 速히處理하기爲하야 商相이活動開始。
◇特別議會열기前에 하고시픈일을 다해치운다면 議會는事後承諾만으로 所任을다할모양。
◇獨逸新聞이『外國式議會의淸算時期』라고 評하는데도 쇠통理由가업는것은아닌듯。
◇入學試驗에떠러지고 傷心끄테 脫線行爲를하는 學生이 種種잇다。
◇말만들어도 애처로운일이나、사람은 逆境에서 勇氣를 가다듬어야한다。
◇學生諸君은勿論、父兄되는사람의 特히警戒할時期。

今日本紙四面

今日少年朝鮮日報發行

材木은三和材木店으로!
豆滿材、日本杉、朝鮮松 北滿材、南洋材、各種 新入荷(在庫豊富)
落葉松 杉松 ラワン材 ベニヤ板 フロリング 朝鮮松 セメント (建築用材)
注文하시는 尺數에 依하야 製材도하오니 地方에서도 多少를 不拘하시고 注文하여주심을 願합니다
京城府新堂町參一 三和材木店 金榮毅
共同火災保險株式會社京城府代理店 (電本②三九五六番)

靑少年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 自宅勤務可能 高尙、愉快한業務 月收多大、詳細記入案內書 無代進呈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성룡선생]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 만흔 대사업가名士들의관상을보고 大好評을바든 관상계의 권위자입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헤매는분、適業을擇하고大成功을바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의서로煩悶하는분、株式、期米、鑛山業으로큰利益을보나、損害를당하나를알라는분、其他、당년신수四柱의길흉、訴訟의勝敗等어떠한問題든지 聖龍先生은 明確하게 親切히判斷하며 開業成功의길을 보여주는 大家입니다 今時에 觀相을보시고 운수가틔어 운수가대통하시오 料金은普通觀相壹圓이오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リ) 京城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 생년월일과 면고자세히적으시고 료금을付送하시면 자세히회답해드립니다 (사진이잇스면더욱좋음)

◎急告 檢眼無料 醫學生
特許眼鏡을 冒用하야 奸利를取하는 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 有하오니 諸賢은 照亮하시옵소서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二)
セブランス眼鏡專賣院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四月十五日◇學則要三錢切手
第四十八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前期)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元京城簿記專修學院改稱) (電本五三二六〇番)

◎新學期開始四月十日 ◎中等科第一部(晝夜)第二部(各中等學校入學及編入學受驗準備)(學則要三錢切手)
生徒募集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二六〇番)

產科 婦人科 內科 小兒科 京城婦人病院
院長醫學博士 松本泰治(月水金) 顧問 工藤武城(火木土)

創立明治參拾貳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出張所 京城南大門、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一丁目、同本町三丁目、龍山、仁川、平澤、利川、淸州、群山、全州、裡里、長興、康津、三千浦、統營、馬山、釜山本町、同牧ノ島、同富平町、麗水、方魚津、元山、永興、咸興、端川、吉州、羅南、會寧、沙里院、信川、新義州、定州、中和、同大同門、鎭南浦、載寧

認可 全國無試驗開業醫師同樣聖業(生活安定) 全鮮唯一認可"速成科專門部、研究所ノ別アリ"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規則書送呈) 釜山府草梁町一三五

最大ナ設備ト最古ノ歷史輝キ·技術的權威アル教授網羅
新學期自動車學生大募集 (要案內書 求三錢切手)
朝鮮總督府 京畿道認可 京城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第一實習場裁判所前)
南大門自動車講習所
◆電話本局八六七◆振替口座二〇五六(第二實習場京畿道試驗場內)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工業指導
小資本으로도누구나할수잇는各種工業을敎授하며 規定書는三錢郵票封入請求하면送呈함
『工業用藥品·釀造用品·化粧品原料·菓子原料·各種芳香料·色素及染料·漢藥及賣藥』販賣商
京城府蓮池町七七 日光社工業部 振(京)一五三三番 支店 滿洲吉林省

韓氏家四代世傳秘方劑 效力偉大·萬腫速治
韓氏膏藥

醫藥界一大發見!! 腦腎丸 神經衰弱根治劑

腦腎丸의 研究發明은 實로 苦心血淚를 거듭싸흔 歷史의 자최에서 피여오른 한떨기의 꼿이오며!!
神經衰弱根治劑업슴을 애처롭게 한숨짓든 여러분에게 우슴으로 되리는 새發見의 膳物입니다!!

그러면 엇지하야 腦腎丸을 含으로 神經衰弱이나 히스테리ー가 곳 나흐며 性的機能不足이나 肺病初期에 特效가잇는가? 그理由는 다음과갓습니다 神經衰弱治療法에 잇서서 從來의治療는 一種의 姑息的療法에 不過하엿스니 例하면 一般興奮狀態에對한 鎭靜劑、消化不良에對한 消化劑、腎氣(性的)不足에對한 催淫劑等의 一時的對症療法을 行하여던것입니다 그리하야 神經衰弱患者로서는 一人도 根治를 본일이업섯습니다 그러나 거듭싸흔 時間과 精進한 科學은 結局 이에 解決을 지어주엇스니 보시라!! 神經衰弱의 原因은 神經自體만에 잇지안코 腎氣(性的)異狀에 因果關係를 둔것을 發見하게되엿습니다 이에 비로소 腎氣(性的機能)를 바로잡고 神經을 튼튼케하는 方法으로 試驗한 結果는 놀납게도!! 頭腦는 淸快하고 眼精은 明凉하며 肺活量이 增大하고 心悸亢進과 消化不良이 업서지며 食慾이 增進하고 腎氣가 强化하야 早漏、遺精、忘動이업고、不眠症、多夢、煩惱、强迫觀念……等이 업서지는 特效를 보이게되엿습니다 이것이 本劑가 나타내인 獨特한 效能이며 그나마 그作用이 一時的이 아니고 存續的인 點에서 本劑가 神經衰弱根治劑로서 獨步를 占하게된 所以입니다

神經衰弱 히스테리ー 腎氣(性的)不足 肺病初期 根治劑 特效劑 腦腎丸

◆本劑의主治效能◆
▲神經衰弱及히스테리ー、▲腎氣(性的機能)不足▲肺病初期、左記症狀中 多少라도 疑心이 되시는분은 服用하시라!!
(1) 頭重、頭痛、眩暈、心悸亢進、不眠症、消化不良、精神沈鬱、異狀興奮、記憶力思考力減退、自信力缺乏、注意集中困難、苦悶、强迫觀念。
(2) 性慾減退、早漏、遺精、陰萎、手足冷厥、腰痛
(3) 食慾不振、疲勞倦怠、夜間盜汗、肩臂痛、虛弱瘦瘠、微熱、促咳等。

◆包裝 半劑(半個月分) [illegible] 一劑(一個月分) [illegible]
總販賣元 京城府鍾路五丁目七十九番地 復活社藥品部 電光二八三〇番 振替口座京城一二三〇〇番

鐵飢饉時代副産賊 通信機關을威嚇

京元間電話線五百米를切斷

電工經驗者의犯行인듯?

요사이 철갑시 폭등하야경향으로 횡행하고 이방면의 도난사건이빈번하야 경찰에서 엄중한 취체를하고 잇는지음 동대문서 관내에는 대담한전화선 도난사건이발생하야 경찰은 쉬색케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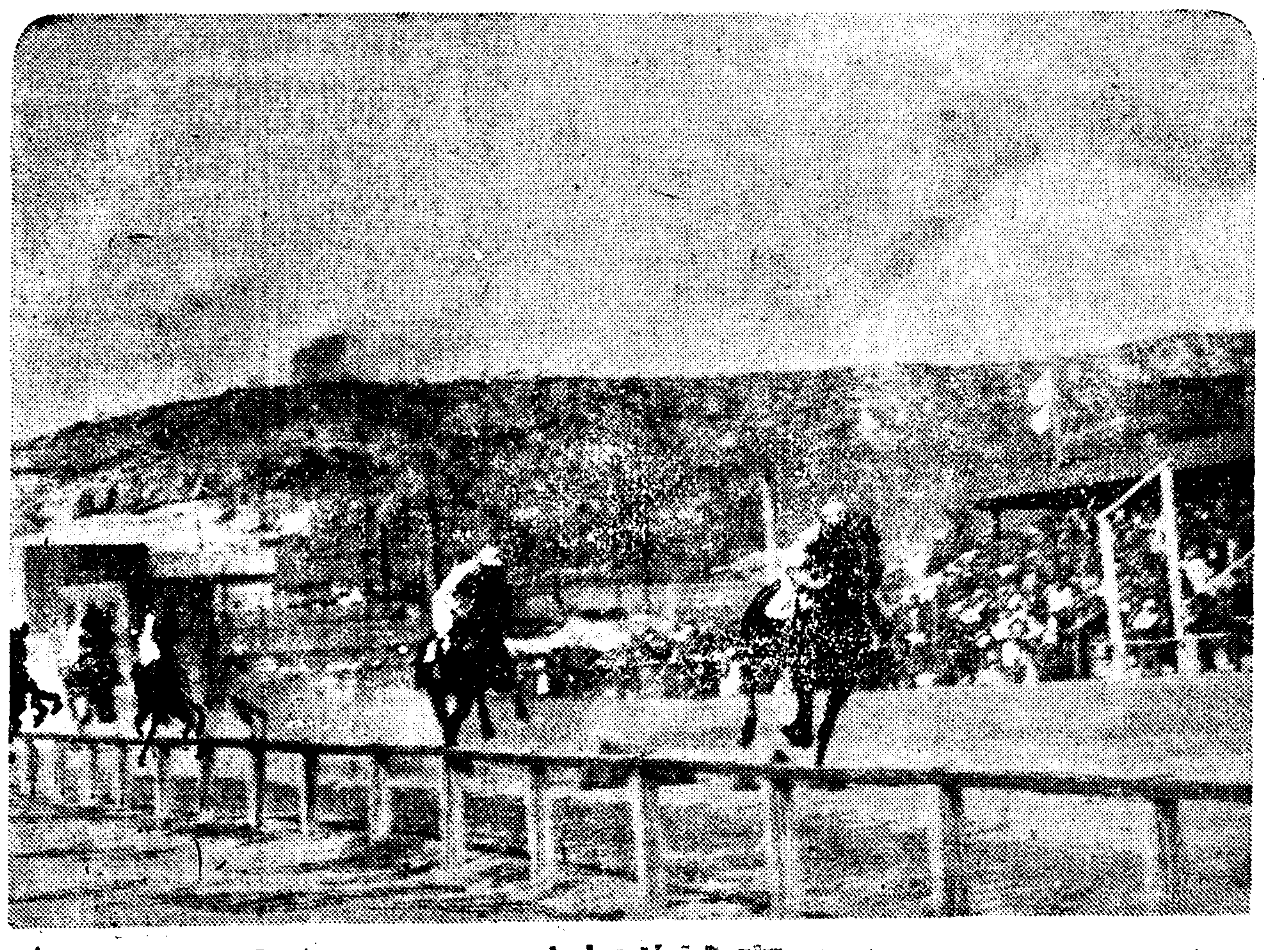
삼일아침 부내도암정(道岩町) 경원가도(京元街道)에잇는경성 원사간전화선이 약오백「메-타」가량을 어떤자가 훔처간것을길 가든사람이 발견하고 동대문서에 계출하엿다 동서에서는 사건을 중대시하고 엄밀히 조사한 결과 이튼날밤에 생긴사건으로 전공(電工)의 경험이 잇는지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범인엄탐중이며 한편 경성중앙전화국(京城中央電話局)에서는사흔날아침아홉시 「트럭」으로전공 다섯명을 현장에파견하야복구공사에 노력중임으로 사일안으로는 완전복구될것이다

三千餘名이動員

約四萬五千株를植附

今日、貞陵里에서紀念植樹

총독부(總督府)와 경기도(京畿道)의공동주최로 거행한 제이십칠회 기념식수(紀念植樹)는 동소문(東小門)밖정릉리(貞陵里)리왕직(李王職)소유림야에서 삼일오전십일시부터 남총독(南總督)이하 총독부각국、과장、탕촌경기도지사(湯村京畿道知事)이하도청각부、과장들약이천명의 관리및그가족과 귀족 공직자등유지하야 일반민간측을 합하야 약삼천명의 대동원으로 일제히 나무심기를 시작하야 정오경까지 약사만오천주의 나무를심은후에 각각해산하얏는데 동소문밧일대는 나무심으러 가는사람의 자동차왕래로 일대혼잡을이루엇스며 정릉림야 일대에는각관공리의 가족들이 마음것 찬란한 봄치장을 울긋불긋산에가득널려서 일종의 이채를보이엇다 (사진은 나무심는 남총독)



肥馬長嘶●春郊에봄足音 (오늘부터京城競馬開始)

生活難•失戀自殺

龍山署管內에만三件

삼일 첫새벽에 춘궁의생활란!실련!등등으로 두청춘남녀와한 노인의 자살사건이 룡산서관내에 생기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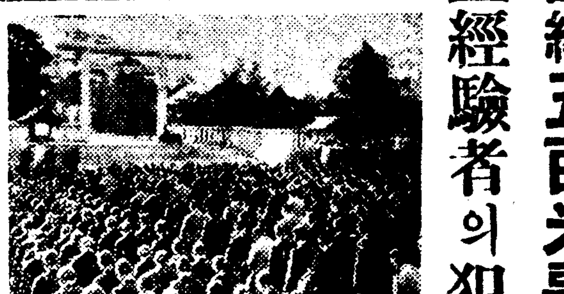
▲부내본동정(本洞町)일백륙십칠번지 에사는 철도직공 김홍석(金洪錫)의처 리일녀(李一女)(二○)는 이일오후여섯시 삼십분쯤 양잿물을마시고 자살을 도모하엿다는데 오후여덜시쯤집안사람에게 발견되여곳 철도병원에입원중아직생명이위독하다는데 그는 이개월전에 김(金)과 결혼하야 그의남편의월급도상당하리라고밋고 신혼의단꿈을 그렷스나 시집와서 알고본즉월급이십오원에 생활이 곤란한지라 이에비관하야 가정불화가끈닐새가 업섯다는데 그는필경비관하자 자살을 도모한것이라한다

▲삼일새벽한시쯤 이십일세가량 보이는 양복입은 술취한청년한명이 조일택시를 시내에서타고 부내 본동정(本洞町)까지 갓다고하야 신한강교까지갓슬때 그는 술에취햇스니 이곳서 나려서 거러가겟다하야 료금구십전을 밧고 나리게하야자동차를 돌려서 다시 부내로향하려할때 그청년은 양복저고리를벗고 한강에 투신한것을보고바로 소관파출소에 신고하야 경관과 자동차로 현장에 와보니 벌서자취는 업고교상에 버서노앗는 양복도 어느행인이 주서갓는지업서저서 그의 신원을 알수가업다하나 그의행동으로보아 실련자살인모양이라한다

▲이일오후아홉시쯤부내 보광정(普光町) 삼백륙십번지 은완식(殷完植)(五三)은 집을나가도라오지안하므로 집사람은 사방으로 차저다녓스나 종래찻지못햇는데 삼일새벽한시에 이르러보광정(普光町) 뒷산 소나무에목을 매여죽은것을 발견하게되엿는데 그의 자살도생활난으로비관자살인모양이라한다

教育團御親閱記念式擧行

今朝、朝鮮神宮廣場에서



오늘신무천황제일(神武天皇祭日)을기하야 오전여덜시부터 시내각공사립보통학교와 소학교의직원 아동대표등 일천륙백이명이 조선신궁광장(朝鮮神宮廣場)에회합하야 남총독(南總督)림석미테 교육단어친열기념식(教育團御親閱記念式)을 엄숙히 거행하엿고 식이끗난후에는 남총독이초등교육의 쇄신에대하야 일장의 훈시가잇섯다 그런데 이는 지난 소화구년사월삼일에 전국초등학교교육정신작흥대회를 궁성(宮城)압페열고 천황폐하(天皇陛下)께압서어친열을 사하압신광영을 다시기념하기위한 회합이라한다 (사진은 조선신궁압페모힌 시내각초등학교교원들)

堅志町에行旅屍

이일오후두시쯤에 시내 견지정(堅志町)일백십번지시장(市場)뒷쪽빈터에 나이약 륙칠십세가량되는 노인이죽어잇는것을지나가는 사람이발견 하엿다고한다

"핸드빽"을紛失

劇場便所에서

부내창신정(昌信町)오백팔십번지에 사는리진숙(李進淑)(二○)이와 종로(鐘路)륙정목이십륙번지에사는 김원단(金元丹)(二○)등의 여자는 삼일밤 본정(本町)이정목 히라관(喜樂館)에서 활동사진구경을하다가 아홉시삼십분쯤변소에 가서「핸드」빽을손씻는곳에 노코변소에 드러간새에어떤자가「핸드빽」두개를다집어 가지고 다러낫다는데 리진숙의것에는 현금오십일원사십전 김원단의것에는 일원십오전이 드러잇섯다고한다

高麗看護婦產婆講習所開所募生

시내 죽첨정삼정목 고려의원(高麗醫院)안에잇는 고려간호부산파학강습소(高麗看護婦產婆學講習所)에서는 금번신학기에 강습생 오십명을 모집한다는바 지원기일은 오는사월오일까지이다

一萬一千餘名 結團式盛大

南總督臨塲下防護團結團

경성방호단(京城防護團)결단식(結團式)은 예정대로 삼일오후두시부터 경성 운동장에서 남(南)총독림장아래 단원일만일천명의 참가로 성대히 거행하엿다 남총독에게 감자(甘蔗)단장으로부터 처음에 인원보고(人員報告)를한뒤 일동의 황거요배(皇居遙拜)와 신궁요배(神宮遙拜)가 잇고 국기게양(國旗揭揚)(국가합창수악가운데)을하고 단기(團旗)및반기(班旗)수여가잇섯다 그리고 감자방호단장의 식사(式辭)가잇슨뒤 남총독 소기(小磯)군사령관 천안(川岸)이십사단장 탕촌(湯村)경기도지사 하전(賀田)경성상공회의소회두 기타 경성부회의원대표자 정회(町會)대표자등제씨의 축사가잇슨뒤 만세삼창으로식을원만히 마치엿다 식이 끗난뒤에는 소이탄(燒夷彈)과 와사탄(瓦斯彈)의 실험도 잇섯다 이날 이광경을 구경하러 모힌일반군중은 오륙천명이나되여서 넓은 운동장은빈틈업시 차엿다 (사진은방호단결단식장전경과래빈일동)

各學校合格者

京城保育(五十名)

李得順 兪載善 崔定鉉 郭貞休 李孝根 張貞姬 卓德寶 姜鳳玉 鄭鐵順 朴基淳 李承助 崔重蛍 姜友松 崔鳳順 金兒嘉 黃貞院 尹容齡 權忠淑 韓燕錫 金桂英 南順德 林富吉 吳瓊植 趙瓊英 張順善 尹基嫂 金七洙 金昌築 林瓊心 劉南福 張正福 崔婧涉 李英寶 張貞妙 黃鳳順 尹美遠 楊珠媛 尹得祥 王玉珠 李玉順 徐淑彩 李永善 金淑子 池昌玉 金貞玉 金順子 孔榮玉 朱東淑 金玉順 禹寶梅

「마스패트」特派美容師

四日부터和信서메이업實演

영화의메-카「헐리우드」에 본포를두고 세계적미용왕으로 일홈이노픈「막스패터-」의 수제자「메이드랜드」양은 몃칠전에 각「스패터-」화장품제조소 수출부지배인스트씨와 함께입경하야명사일부터 화신칠층에서 일반에게「메이업」실연을할터인데 전기「메이드랜드」양은 구년간「헐리우드」에서 미용술을전문한미용사로 과학적미용에 권위자라고하며 입호도 경성에도지점을 두게되엿다고한다

(사진은화신사를방문한 메이드랜드양일행)

朝鮮의社會事業을 今後는兒童中心

이번七十議會를通過한母子法을土臺로 兒童法도새로制定할意嚮

조선의 제이세국민인 어린이들에게 사회적 새시설을 하야보건중심、학대방지등 여러가지로보호하며 사랑한다는 신조선을마지하는 아동들에게 일종의명랑한 소식이 들린다

조선의、각종사회사업시설이여러가지로 뒤떠러저잇는중에도특히 어린이들에게 대한 시설이거의 결여하다십히 되여잇는현상임으로 이에대한 새시설의긴급함을 느끼고 류생사회과장(柳生社會課長)이 동경(東京) 대판(大阪) 경도(京都) 신호(神戶)등지의 아동에 대한사회시설을 시찰한후 일전에도라와서 그새시설에 정면으로 진출하고자 방금여러가지로 구체적계획을 세워 착착 그실현공작에 로력중인데 이에대한 새시설의내용인즉 경성에도 대판경도등지의 아동원(兒童院)과가튼기관을 설치하고 임부(姙婦)를비롯하야 산아(產兒)의 안전과 육아(育兒)의 충실과 이들성장시의 학대를 방지하며 보건을 존중하는등 여러가지인데 이것은 이번의회에 통과된 모자법(母子法)을 토대로하야 조선에도 아동법(兒童法)을 제정하야 사회적으로튼튼한 존재를주어가지고 만반의애호에적합하도록 사회적시설을 하는것이다

京仁驛傳競走大會出發光景(今日總督府前에서)

京城⇅仁川間驛傳競走

鐵脚陣의大混戰 遞信軍連覇

往路엔平壤軍이一着 各區間의記錄更新

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五回京城⇔仁川間 往復驛傳競走大會는 三日午前十時에總督府前廣場을出發點으로 京仁街道往復五十一哩(八十二키로)코-스에서擧行되엿다 出發前에參加한遞信 平壤 培材 養正 開城 往十里 仁川 永登浦 阿峴白馬A B兩팀 白光 第二高普等十二팀의入場式이잇서 奥村副會長의開會辭가잇슨後 昨年의優勝팀遞信팀과二着인平壤팀으로부터 優勝旗와準優勝旗를返還한다음 木村審判長의人事로서式을마치고 第一區走者十二名의 先發隊는 『피스톨』소리와함께 京仁街道를向하야 一齊히 스타-트하엿다

따듯한봄날씨로 驛傳競走에는 더할나위업는 絶好한「컨디숀」이엿나 必勝을期하는出戰勇士들은 劈頭부터 大混戰을展開하야 沿道에陣치고잇는觀衆들의 熱狂的聲援을바드며 每校모다鄕土의名譽를걸머지고奮戰力鬪하고잇섯다

往路에는 平壤軍이先頭에나아가優勢를보이고 傳統的强味를자랑하는 養正軍이 第二位로 上仁川驛前에도라 歸路에드러스자 뒤를따르는遞信軍 便利히追蹤하야 第四區에서 養正을 제치고 先頭의平壤軍과 猛烈한 接戰끄테 第六區走者柳長春이 午後二時四七分、群衆에드리는拍手와 感激의歡聲속에 『골인』하니 遞信軍은 連二年制覇의 榮冠을 獲得하엿스며 遞信의 往復所要時間은 四時間四十七分五十二秒로서 從來記錄四時間五十五分七秒를突破하엿다 그리고 이날은各區間의記錄이全部更新하는 實로 劃期的收穫을거두엇다

(圖內는柳長春君의골인刹那)

第一區 總督府…梧柳洞(八、三六三•八米)(午前十時出發)
1(仁川) 松川 [illegible]
2(養正) 金鍾植 [illegible]
3(平壤) 文允善 [illegible]
4(培材) 劉兎興 [illegible]
5(遞信) 韓日進 [illegible]
6(白光) 鄭壽吉 [illegible]
7(往十里) 李明實 [illegible]
8(開城) 閔成奎 [illegible]
9(白馬A) 梁斗喆 [illegible]
10(二高) 金懿鎭 [illegible]
11(永登浦) 李承燦 [illegible]
12(白馬B) 李良根 [illegible]
(以上全部新記錄)

第二區 梧柳洞…富平
1(平壤) 金俊根 [illegible]
2(養正) 姜明鎬 [illegible]
3(仁川) 田錫九 [illegible]
4(白光) 金斗仁 [illegible]
5(往十里) 金炳瓚 [illegible]
6(遞信) 邊(第) [illegible]
7(白馬A) 方壽泰 [illegible]
8(培材) 鄭寅王 [illegible]
9(開城) 李雲鶴 [illegible]
10(二高) 梁承國 [illegible]
11(永登浦) 諸二福 [illegible]
12(白馬A) 張壽永 [illegible]
(以上全部新記錄)

第三區 富平…上仁川
1(平壤) 李永澤 [illegible]
2(養正) 崔容杰 [illegible]
3(遞信) 李振興 [illegible]
4(仁川) 申壽鐵 [illegible]
5(往十里) 閔和植 [illegible]
6(白馬A) 金榮培 [illegible]
7(白光) 林聖煥 [illegible]
8(培材) 朴泰慶 [illegible]
9(開城) 張宙炯 [illegible]
10(二高) 崔泰熙 [illegible]
11(永登浦) 韓萬九 [illegible]
12(白馬) 金龍雲 [illegible]

第四區 上仁川…富平
1(平壤) 李永燦 [illegible]
2(遞信) 閔泳昆 [illegible]
3(養正) 金春亨 [illegible]
4(仁川) 池元奎 [illegible]
5(往十里) 申東權 [illegible]
6(白光) 金明山 [illegible]
7(白馬A) 金昌福 [illegible]
8(培材) 池永龍 [illegible]
9(二高) 權赫世 [illegible]
10(開城) 李錫南 [illegible]
11(永登浦) 林敏懋 [illegible]
12(白馬B) 李德寶 [illegible]

第五區 富平…梧柳洞
1(平壤) 金德寶 [illegible]
2(遞信) 朝倉 [illegible]
3(仁川) 諸龍喆 [illegible]
4(養正) 李用周 [illegible]
5(往十里) 崔李龍 [illegible]
6(白馬A) 金國培 [illegible]
7(白光) 孫允益 [illegible]
8(培材) 尹永學 [illegible]
9(開城) 韓禹壽 [illegible]
10(二高) 金鎭穆 [illegible]
11(永登浦) 張基儆 [illegible]
12(白馬B) 崔甲成 [illegible]

第六區 梧柳洞…總督府
1(遞信) 柳長春 [illegible]
2(平壤) 金德淳 [illegible]
(以上新記錄)
3(往十里) 安三鎭 [illegible]
4(仁川) 李安淳 [illegible]
5(培材) 李鍾禧 [illegible]
6(白馬A) 朴判用 [illegible]
7(養正) 權奈建 [illegible]
8(白光) 金在八 [illegible]
9(二高) 金道植 [illegible]
10(開城) 張春興 [illegible]

日曜講話

◇南大門外教會 午前十一時 예수와弟子의心境 金英珠氏 午後七時半 하느님을알자 朱雲成氏

◇基督教會(仁川松峴町教會) 午前十一時 基督의精神 申新根氏 午後七時半 未定 金道定氏

◇發皇寺 午前十一時 念法의生活 許永鎬氏

◇石橋教會 午前十一時 마음의봄 朴淵瑞氏 午後七時半 未定 金五峰氏

◇尙洞教會 예수를따르라 姜泰熙氏 우리몸은聖殿이다 金鎭浩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예수가무엇을주섯나냐 金鍾宇氏 午後七時半 오늘의우리들 李浣鉒氏

◇宗橋教會 午前十一時 유대人의未熟 申公淑氏 午後七時半 未定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預信則見上帝之榮光 金永燮氏 午後七時半 나의責任에對하야 方薰氏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黃海로부터 朝鮮에퍼지고 低氣壓은 松花江流域과 沖繩의 南方海上에 잇서서 모다 東進하고잇다 滿洲로부터 北朝鮮에 亘하야 天氣는조흐나 中部以南은 흐릴것이다 日本內地方面은 北海道와 四國은 흐림이요 大東은 개엿다

豫報 今夜도 明日도 흐렷다 개엿다 할것이다 全區는同一

昨日最高 十一度八 昨日最低 零下○度七 今朝最低 ○度八 正午溫度 九度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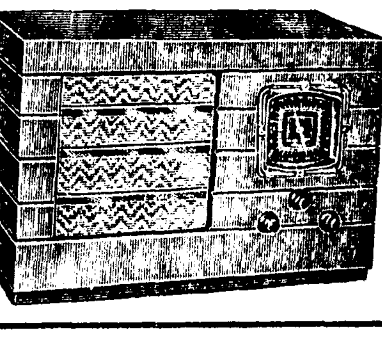
京城運動場開場式

京城府에서는 今年度京城運動場開場式을 四月六日午後三時부터 同運動場에서擧行할터이라는데 이날은 府會議員對記者團의 庭球、野球戰을 行할터이라하며 게임이끗나면 淸山莊에서 晩餐會가잇슬터이라한다

廣告

近日優美館에서封切 監督脚色 申敬均 撮影 梁世雄 成大勳原作 純情海峽 映畫化 出演 金一海、金錦玉、徐一聲、獨美鶴、金蓮心 長篇小說『純情海峽』定價一•五○錢送料一○錢

ナショナル代理 東一電氣商會 ナショナル受信機 乾電池ランプ 各種ラヂオ 電氣器具卸商 卸商 京城仁寺町一五 電(光)二二九七番 振替京城二六五○三番 同業者에限하야商報進呈



淸血排毒特効藥 海草精 壹瓶(一個月分)三圓九十錢 京城鐘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スポーツ用品と服裝 京城壽松町 大京スポーツ商會 電光二五八二番 振替京二五八七八番 カタログ進呈 要送料三錢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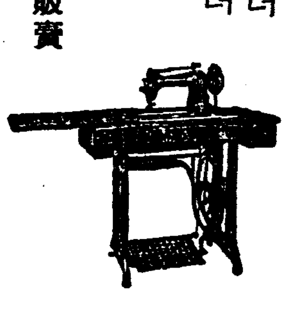
女店員至急募集 年齡二十才ヨリ二十七八才迄ノ容貌美ナル鮮人女子事務員 採用ス希望者ハ自筆履歷書、携帶本人來談ノコト 面談時間、自午後一時至三時 京城出張所 村木時計店 株式會社 (電本三四七二一番)

讓店 洋藥房發展地鍾路附近 光化門局止ヒロセ

求下宿 閑靜淸潔한素人下宿 宿料高價不拘 (電光三二五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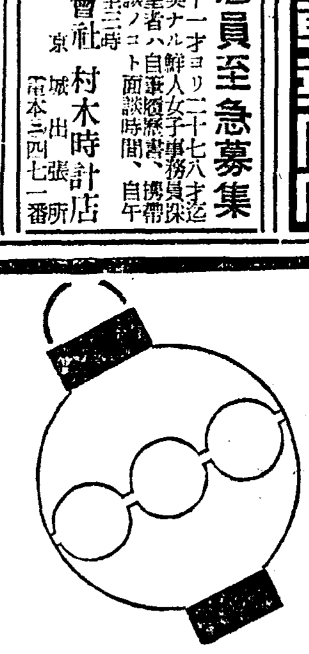
돈벌이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高級アイスケーキ機械 其他 冷凍機特價販賣。豫約開始 代理店。特約店 外交員募集。型錄進呈 製造營業秘法傳授 釜山府大廳町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御德用재봉틀各種 싱거ー製(中古品)五個年責任保險附 十五種手廻機 百五圓부터 十五種足踏機 九十圓부터 國產機(新品) 十五種足踏型 七十五圓 十五種手廻型 五十五圓 市內에限하야月賦販賣 (ミシンカタログ進呈) 京城鍾路二丁目二十七 楠商店 電話光三九六番 ミシン買賣한다 중고재봉틀高價買入



參謀本部陸地測量部發行 五万分一地圖販賣元 京城公平町六 東亞商會

訃告 溫樂中 王大夫人寧越辛氏以老患不幸於今月三十一日(陰二月十九日)午後七時別世玆以訃告 丁丑三月三十一日 護喪 金 嗣孫 金柴金趙朱 婿 順樂亨秉祐永永 公中燦瑚權燮澤



꼿보다경단이고 경단보다는마꾸닌제리 虫下에 マクニン 마구닌 効力잇고·먹기도조와 株式會社藤澤友吉商店

德永西大門支店開館 14月日開館 記念品進呈

大特價品(一例) 와이샤쓰 1.00 샤쓰 .50 갓다샤쓰 .90 안다샤쓰 .35 넥타이 .50 사루마다 .15 쓰봉쓰리 .35 양말 .12 모자 1.20 단장 .35 학생가방 .30 부인양산 .35 부인양말 .25 핸드빽 1.50 아동복 .40

謹告 過般來西大門支店을增設하옵기爲하와修理工事中이옵던바諸般의新設備가整頓되와來四月一日부터一週間記念品附로開店披露大廉賣市를開催하오니倍前愛護하여주심을伏望하옵나이다 京城鍾路 德永本店 謹白

京城鍾路 德永 德永西大門支店 京城西大門通一丁目(前和信連鎖店跡)

健康平南目標코 農村衛生一齊調査
結核、不具、癈疾、寄生虫等과 換氣、採光、便所構造等等을

【平壤】평남도위생과에서는 도내전체의향한 사망률이해마다격증하고잇는것을우려하여 사월초순부터 계속사업으로 농촌위생을전문적으로 조사하기로 되엿다 조사의범위는 결핵(結核)을필두로『마라리아』기생충(寄生虫)『트라코마』등 지방병관계를비롯하여 불구자 폐질자(癈疾者)등을 조사하고 다시분만(分娩)과 출산(出産)상황과 일반분만에대한 미신적행위 출산과빈부정도관계 조산(早産)과 류산(流産)과 생활정도관계 농촌에서의 신체발육상황 시절과 류행병 의복과식료 음료수(飮料水)음샘과사망과의관계 가옥의환기(換氣) 채광(採光)과변소의구조등을비롯하여 상세히조사하여 그결점을 가급적개선하여 문화인으로서의 위생적생활을 하는동시에 건강면(面)을 창조할계획을세웟다

그런데이조사의 완성까지에는상당히장구한 시일을 요하려니와 풍토 기후가 주민의 건강여하를 좌우하는만큼 전부의 관계를충분히조사하여 최후적 성안을작성할터이라한다

校名은〃水南〃 校舍一新改築
盛運의末陰校

【淸津】강인백(姜仁伯)씨 특지로 소생한 청진부수남동(水南洞) 말음학교(末陰學校)는 그동안 재단의 확립을보고 교사신축에대하야 설계를 진행중이든바 성안을어덧음으로 지난삼십일일오후 동교에서 교사건축청부에대한 입찰을시행 하엿는바 시내 포항동금광조(金光組) 김경수(金慶秀)씨의 일만칠천삼원 으로 락찰되엿다한다 설계에의하면 목조이층(木造二層)의 교실여덜개 건평이백칠십평의 호화로운 건물로될터인바 … 답을 수용할능력을 가저다한다 더욱이금번는 학교명칭을사립수남보통학교(私立水南普通學校)로개칭하야 … 청진부의 사실상 중앙지대에위치하는대규모의교육기관으로서의그전도가자못유망하고잇다한다

開城新聞協會 定期總會開催

【開城】개성신문협회(開城新聞協會)에서는 지난일일 오후칠시경에 송월관(松月館)로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측에의하야 간사(幹事)선인을 서로선정하얏는데 피선된이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金麟元(朝鮮日報支局) ▲金井米一(大阪朝日新聞) ▲中田龜雄(大阪每日新聞)

土木界風紀肅淸코저 賄賂、饗應을嚴禁
咸北道서警告文發送

【羅南】신흥함북의건설을앞우게되여시는 토목경기의 왕성에잇나 신년도를 마지한 함북토목계에는 일즉이 그유례를 보지못하든 광범위와 방대예산으로 시행됨으로 각처에서 몰려드러오는 노동자가날로 늘어가고잇는 요사이 홍성홍성한 반면에는 컴컴한 불상사가 속출하야 토목사업계에 명랑성을 흐리게하고잇다 이에도토목과(土木課)에서는 관내토목계의 숙청공작의 제일단으로 함북토목건축협회(咸北土木建築協會)에 다음과가티 엄중한 내용의경고문(警告文)을 발송하야 철저한 단속을명한바잇다

警告文要旨

一、工事運行의 廉正에대하야는 (가) 사리(私利)만을취하지말고국가적사업이라는 점을고려할것 (나) 감독관청(監督官廳)의직원에대한증뢰(贈賂)는엄금할것 (다) 감독원(監督員)에게향응(饗應)을엄금할것 (라) 상하협조하야 공사의원만을기할것

二、勞働賃銀의認定確立에對하야 노동자부족으로 이러나는 노동자쟁탈전을 업새고 임금의 경쟁적견지에서하는 인상을피하도록 협조할것

三、人夫賃銀未拂에對하야 이를업새고 임금의지불을 지연시키는것은 엄금할터이다

四、現場代理人의選定에對하야 현장에서 청부업자를 대리한다는명목을 이용하야 종합적 하청부(綜合的下請負)를시키는 자가잇는데 이는 법규를무시하는 행동임으로 엄금한다

이상가장의 요지로 나타난바에의하면 현재당국으로서 단속할필요를 느끼고잇는점이 그얼마나만흐며 심각한 안녕질서문제에 잠재하야잇는자를 엿볼수잇나 금번의 금단으로서 아프로 함북노동방에도 명랑한기분이 떠돌기를 일반은기대하고 잇다 한다

鍾山邑에怪火

【鍾山】지난 사월일일 오후팔시 사십분경에 금자산내중도리(中島里)오백사십칠번지에서 림대성(林大成)의 집에서 불이나서 일시소동을 이르켯섯는데 당지경찰서원과 소방조원들의 필사적노력으로 해량일동만을 전소시기고 동칠시십오분경에 진화되엿는바 화재원인은 아즉알수업스나 요사이 연일하야 원인모를 화재가 빈발함으로 일반시민들은 공포에싸여 안면을못하고 밤을새인다고한다

온갖惡弊疊出해서 電話申請制度改正
이때에昨年보다八百件減少
平壤局管

【平壤】평양우편국에서는 삼월말일까지에 지급전화개통신청을 마감햇는데 지급전화개통제도의 개정으로인하여 부정신청에 엄중한제재를 가하는한편가입등기료(加入登記料)와 전화가설료등 백사십원을선납하게되기때문에 그영향이크게되여투기적신청은 완전히 자최를감초아 접수총수는 겨우 구백오십육건에 멈처저 작년에비하여 칠백팔십사건의 감소를 보게되엿다 이가운데서 우선권(優先權)은이십건정도로보여 전화배정일천도로되엿고 이러한 현상으로보아 전화시가도 다소저락될 모양이라한다

피로물드린夫婦愛
變心한愛妻차저엿장사로轉轉二年만에
다닥치자憤心끄테七首로亂刺

【全州】지난일일오전세시반경이 부내복성루(福盛樓)에 어떤괴한이 침입하야 곱게잠들고잇는김동녀 박현순(朴賢順)(二〇)을 식칼로 찔러 중상을입히여 보기에도끔직한 류혈극을 연출하엿는데 전기박현순은 십년전에 평양서열다섯살때에 대동군에거주하는김원석(金元石)이라는사나이와 결혼하야 단락한생활을 하여오든중 남편의친구리자성(李子成)(假)이라는사나이가 현순의 미모를탐내여 늦자저와서 가진계교를다피여가면서 가치살기를청하므로 할수업시 현순도 허락하야 두남녀는 멀리원산으로 사랑의도피행각을 하여오든중 소화십년팔월경에 리자성은 절도죄로 륙개월간의형을바더 청진형무소에 수용되자 한뉘갓치 밋고잇든 남편을일코 타향에서 방황하고잇다가 아는사람의 알선으로 흥남에가서 남의집고용사리를 하고잇섯다고한다 그후 형기를 맛춘리자성은 안해를찻자 흥남으로 차저가니맛고잇든 안해는 마음이 여지업시변하야 이리핑게저리핑게하고 만나주지안흘뿐아니라며칠이지난후에는종적까지감추어 버렷다한다 분개한 자성은그행방을 차저오든중 전라도 전주(全州)에 잇다는 소문을듯자 멀리원산으로부터 밤을새워가면서 차저와보니 칠천여호나되는 장안에서 어데가잇는지 알수가업서 한꾀를내여가지고 엿장사로 가장하고 그의살고 잇는집을차즈려고 집집마다 방문하기를 며칠동안하든중 하로는 전기복성루 압흘지나자니까 그가찻기를원하야가진고생을한든안해가 복성루문압헤 잇음을보고곱이엿판을 버서던지고 뛰여가 그를차젓스나맛나주기도 실혀하는지 몸을피하여 버렷다고한다 흥분한 자성은 그를죽여버릴결심을하고 그집을뛰여나와 식칼하나를 어더서 몸에품고날이어둡기를 기다리어 그집부근을 배회하다가 인적이고요한 틈을타서 료리집담을 넘어들어가 전기현순의 잡는방을 습격하야 원한의 칼날을던진것이라고한다

紛糾中의勞賃問題 商議에調停一任
勞資懇談會의協議로

【元山】원산영창조(榮昌組)등정미소에서는 수차에백처 하주간의 노동단체는 일반물가가 사오할식 올랏스나 노임은 수년전 예정한대로 잇서서 사려갈수업스니 노임을 올려달라고 원산상공회의소를 통하야 하주측에 진정하얏는데 이래 원산상공회의소에서는 수시로 노임문제를 협의하야 … 노동단체의 요구조건과 합치되지안어 며칠전에는 노자(勞資)량방이 한사리에 회합하야 타협하얏스나 역시 원한결과를 엇지못하얏다고한다 그리하야 결국 그조정을 상공회의소에 일임하기로하얏다는데 그회의소에서는 경찰당국과협의한후 개정임금을 결정하기로되엿다고한다

端豊線工事場에 全北서大量移民
七日端川驛에下車

【咸興】남조선로동자의 이민정책으로 약칠천명을 북조선각공사장에 수송하기로되엇는바 그중 단풍선(端豊線)철도공사장에 이송하야올것은 전라북도의 로동자 구백구십여명으로 결정되얏다 그들은 오는사월칠일 오전여섯시오십분 단천역착의 북행차로 공사장에 당도하기로 되엿다고한다

數千苹果業者總結束
移出檢查反對決議
期成會組織코 農林省에代表派遣
植物檢查制實施問題

【鎭南浦】방금농림성(農林省)에서 조선산 평과에식물검사(植物檢査)제를실시하려고 착착 계획을세우고잇다는소문을 드른조선내각지평과업자들은 만일식물검사제가실시되는날이면 조선산평과는일본내지 방면으로 자유이출이불가능하게되는관게로 다수의평과업자들은 물론조선산업경제계에 실로막대한 영향이밋치는중대문제이니 만치 일년오백만관이나 생산되는진남포평과업자들은 대책을 강구하여오든중 당시수천과수업자가 총망라하여결성되과 물동업조합(果物同業組合)이 주체가되여 반대운동을일으키기로되엿다한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일일오후두시부터 진남포공회당에서 동업조합평의원회를열고 장시간토의한결과 조선평과일본내지 이입검사방지기성회(朝鮮苹果日本內地移入檢査防止期成會)를 조직한후 대구, 황주등지와 련합하여가지고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일으키는일방 직접농림성에 대표를 파견하여 진정하기로되엿다는바 그결과가 매우주목된다

발에채여即死

【海州】안악군대행면청운리(大杏面淸雲里)에사는 민영직(閔泳稷)(꼬)은 그동리 홍용가(洪龍?)집 뜰에서 마침 그집에와잇든 가튼군서하면 덕일리(西河面德日里) 민문식(閔文植)(三七)과 사소한일로 말다툼을하다가 싸움이시작되자 겻헤서 이를보고잇든 전기민문식의딸 민선옥(閔善玉)(이)이 싸움을말리려고 겻흐로간것을 민영직이가 발길로 복부를 거더차서 임신중의민선옥은고민하기시작하야 그로인하야 이십사일오후 열한시경 절명하엿다 이사실을 드른가해자 민영직은 그호곳 행방을 감추어버리엿스므로 소관안악서에서는각방면에 지명수배를하고 엄탐하든중 지난이십구일 은률군장연면용포리(殷栗郡長連面龍浦里)민영로(閔泳魯)방에 잠복하고잇는것을 체포하야 본서에 인치하고문조중이라한다

元山 오ㅣ케大演奏會

▲日時 四月七、八兩日午後
▲場所 元山館
◇主催 文化樂器店、伯林堂
◇後援 朝鮮日報元山支局

中等校合格者

大邱信明學校

金七伊 金相姬 徐昌金 李貞淑 鄭海順 姜玉南 李鳳桃 朱一玉 吳晶恩 權世祿 崔英娃 林福童 金王得 崔鳳和 吳相玉 秦占順 宋信愛 金淑誠 馬玉和 金春伊 金周姬 李聖粉 金霧煥 金貞粉 河一圭 李粉香 表桂煥 李應仙 金玉調 鄭通淑 李鍾淑 李水松 金順道 李允祚 李基南 安雲子 李大淑 李美正 徐德稷 李申生 申燕植 金鳳圖 鄭實珠 金福順 申玉祚 金永淳 文貞淑 李花永 李小蘭 艮月桂 金鎬和 姜仁善 洪泰賢 徐丙姬 尹玉子 以上五十九名

宣川商業實修

朴逢郁 任成福 金昌義 朴永哲 元基榮 金炳晋 金起先 李奎仙 崔義坤 金贊奎 李明秀 崔昌泳 金龍默 崔舜鳳 金明延 鄭潤參 李昌熙 朴光德 尹德熙 吳有根 金明甲 韓景恩 李元甲 韓昌龍 李文永 梁柱善 全日淑 洪鳳善 金基準 洪淳誠 林龍華 卓基守 綜明錫 金炳麗 朴聖根 池應庚 鄭雲夏 李禧泳 李成俊 李鴻培 張龍慶 崔貞俊 張世哲 桂德邁 李鍾榮 張恭 崔應周 田克善 李穎 金鎭秀

載寧明新校

張斗煥 林寬善 尹成一 孫德壽 朴明順 金昌培 宋運燮 崔順八 宋斗燮 尹熙珳 張景春 尹昌鳴 安華錫 林泳植 元宗均 奇光淳 李澄燮 金澄泰 宋仁洙 金建鉉 韓龍煥 金萬舜 崔光鎭 崔琉球 金昌彬 王承鉉 林龍文 高根弼 林東國 金偵英 李椿赦 朴南善 孔達用 張滄甫 任永宰 文鍾潤 金桂錫 文泰龍 崔景元 金甫圭 崔奎周 許京弼 崔鍾顯 鄭臣在 黃鍚鎬 盧東海 元良燮 朴達元 梁承澤 康承裕 孫龍動 柳雲燮 權寧哲 柳承湧 趙仁成 李鍾達 吳世福 吳德俊 李奉三 朴元根 洪鍾鳴 崔晶浩 柳煥澤 諸基俊 鄭煥模 金光洙 金順觀 李哲永 蔡義裕 李信俊 表聖鉉 李義禧 金順男 柳夏植 李泰相 禹濟文 金寅弼 金順伯 李京植 金在澤 李根春 李寧洙 康仁根 鄭圭瑢 安泰遠 金鳳激 金承俊 朴胤夏 吳熙禪 車鍾燦 崔東白 朴桃旭 李喜世 朴亨淳 李永夏 金元淳 閔丙烈 金性郁 金壽景 金燦熙 金龍福 韓基靜 金達鋪 孔潤達 表泰翊 李淳培 朴鼎商 李錫湜 林錫瑤 梁萬興 宋理大 郭永憲 金昌濱 金秉鎬 曾昌檀 金昌涉

北靑公立職業學校

一、建築科(十五名) 松下賢降 國信一 池榮緖 李南垣 李鑿遇 韓安淑 李祖鉀 高炳斌 金炳益 朴元澤 金知覺 李錫喆 李明春 李錬 朴元俊

一、家具科(十七名) 林貞一 金東植 朱炳昭 李任鎬 朴寅郁 韓一錬 韓慶永 金周衡 崔鳳在 李稙 韓錫叔 金衡模 李鐘濬 金寶國 康英在 趙鴻河 安鎭濤

一、金工科(十八名) 朴中燮 姜石秀 李東洙 金誠泰 李哲均 朴萬暉 金明桓 韓秉元 金璨 尹鎬烈 李善雨 成德實 朱淳泰 朱昌煜 金忠式 李應七 李錫鳳 金榮奎

延安農業學校

劉達龍 李泰淳 池常浩 趙泰庚 馮殷龍 李錫五 趙增權 李義坤 李勉植 郭斗浩 郭得龍 南宮垠 金元錫 禹鍾懋 全海鳳 全海烈 郭南永 周萬奎 河斗植 郭圭殷 金源植 宋榮賢 李錫範 李貞玉 李道淳 李擇基 李禮秀 李承福 文英培 金鍾德 鄭殷和 趙寶煥 李容定 韓世恩 朴明遠 趙鍾燮 韓潛武 成基昌 沈斗輔 權寧龍 權五斌 趙雖東 朴鍾淳 蔡舉洛 崔炳燮 鄭根鎬 柳寅文 沈元燮 張勉植

北靑公立農校

申元輔 姜斗洪 康承奎 姜突三 禹鍾九 全榮成 玄九大 朴以豹 李城澤 禹應得 韓昌煥 禹二孫 崔晃齊 梁周淑 金佰學 元淑喜 金奭 全淑禹 劉庚植 李乙南 金元必 崔載鳳 李東植 金偵郁 朴燦鎬 韓斗應 朱俠烈 金福宣 徐斗選 郭熙鎬 姜昌益 李中稙 金圭哲 殷春模 高炳龍 李一成 金仁洙 李應八 魚鴻善 金重式 金達式 鄭昇鎬 金鍾日 孟性鎬 李桂煥 金東厚 李錫俊 金商七 黃亨祚 高殿執

統營水産學校

安鐘榮 金丁漢 李祥雨 高坤錫 辛世植 孫在喆 金秉均 梁奭翊 崔同均 池洞浩 金益科 鄭世珍 鄭海相 玉乏龍 鄭德祐 方秉炫 康鴻武 金末鐵 車福男 金龍茂 李炳玟 金松治 劉龍熙 金漢奎 許諾晋 徐學鳳 尹炳燮 裵武熙 崔壽道 蔡三奎 權泰滿 崔東官 金淳起 鄭忠燮 梁石彬

◇補缺 池昌元 金正祿

라디오

三日(土曜)

◇午後六時 理科이야기『森林』 徽文高普 李軒求
◇同六時二五分 講演 神武天皇祭를當하야 沈宜麟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平調會相 二、吹打 三、與民樂 奚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 野談 父風世習 庾秋岡
◇同八時三〇分 室內樂 풀룻、바이올린、첼로、피아노、를위한 一、三重奏曲 作品一番 헨델作曲 라르겟토、알레그로、아다지오、알레그로 一、오-보、바이올린、피아노를위한 三重奏曲 그라운作曲 라르겟토알레그로、씨실피아노

第一放送

◇午後六時(城) 만도링
◇同六時三〇分(城)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大) 國民歌謠
◇同七時四五分(東) 長唄
◇同八時二〇分(東) 琵琶
◇同八時四五分(東) 新講談

四日(日曜)

◇午前〇時五分 漢江水打鈴外 一、漢江水打鈴 二、현브리아 三、도라지타령 四、노들강변 五、흥타령 六、新陽아리랑 唱 林明月 細田 姜鶴深 短簫 崔壽成
◇同一時二〇分(東) 管絃樂
◇同三時三〇分 春期競馬大會實況 京城東大門外新設町競馬場으로부터中繼(京城)
◇同六時 兒童劇과少年小說朗讀 一、兒童劇『호랑이와토끼』 二、少年小說『어린나그네』 指揮와朗讀 朴興珉 樂心會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佛學 權相老
◇同七時三〇分(平) 西道歌謠 一、愁心歌 金道俊 一、賞玉의舞曲에서……무니엘作曲 가、미뉴엣트 나、가봇트 다、왈쓰-렌트 二、봄의音樂가、봄에게……高橋功作曲 나、밤……카로니作曲 다、밤의精……핑가란드作曲 라、봄의노스탈지아……武井守成作曲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江上에봉봉 二、唱劇調……興夫歌 唱 昇九 鼓手 韓成玉
◇同九時 라디오드라마『빠러』二景 ▲配役 金元植…(曾虹光)…河一瑛 波子…(그의妻)…李英惠 安炳浩…(그의친구)…金源 黑瀬秀…(波子의伯父)…閔湖涉 王碌……崔京子 演出 效果 朱虎 放送劇協會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朝鮮으로부터-京城-) 講演 在滿의여러분에게 總督府財務局 金秉旭

第一放送

◇午後〇時五〇分 滿洲로부터 新日本音樂
◇同一時二〇分(大) 野球
◇同二時一〇分(東) 라디오驛曲
◇同二時五五分(東) 浪花節
◇同六時(東) 나제나제問答
◇同七時三〇分(東) 뉴-스演說
◇同八時(東) 映畫劇
◇同八時三〇分(大) 歌謠曲

地方人事

▲尹雲燮氏(鎭南浦府議)新任人事次 本報鎭南浦支局來訪
▲丁炳稙氏(湖南銀行麗水支店支配人代理) 榮轉人事次本報長城支局來訪
▲邊錫仁氏(前元山列車區勤務)今般咸鏡線雲浦驛助役으로 榮轉人事次本報元山支局來訪
▲秦龍燮氏(高麗時報社事務取締役) 新任人事次 本報開城支局來訪

長篇小說 그의自叙傳【101】
長白山人 作 熊超 畫

북경(十三)

내 소설의 표제는 『진정(眞情)』이엇다. 나는 내가 참되지 못한탓으로 참된것이 소원이엇다. 나는 참된 애국심, 참된사랑, 참된 우정을 그리고 싶엇다. 내 소설의 주인공 H라는 사내와 Y라는 여자는 참되라고 애쓰는 사람들이엇다. 한번 속으로 허락한 사랑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하랴고 애쓰는사람들이엇다. 그들은 그들의 애인을 참으로 사랑하는 동시에 그들의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라고 애썻다. 그들은 결코 재주에서나 다른 능력에서나 빼어난 사람들은 아니엇다. 차라리 조선 사람이 가진 모든흠점을 다가진 사람들이엇다. 의지가 약하고 곤난을 참고 새길을 개척해나가는 힘이 부족하엿다. 나는 이것을 현대 조선사람의 공통한 결점으로 보기때문에 H와 Y에게도 그러한 결점을 주엇다. 그리고 다만 내가 가장 말하고싶은 참되랴는 애씀만을 그들에게 주엇다. 이렇게 하는것이 현실에 충실할뿐더러 또 참되랴는애씀을 두드러지게 독자에게 인식시킬수잇다고 믿는것이다.

나는 이 속에서 특별히 두가지를 말하려하엿다. 그것은 내가 나고 자라고도 몸담을 땅에서부터 내 생활을 떼수없는 것, 나는 마치 그땅에 난 풀이나 나무와 같이 그 땅을 떠나서 생명이 업다는것, 그리하고 남녀간의 사랑은 가장 청정할것, 따라서 정조란 남녀를 물론하고 소중하다는것이엇다.

이러한 청정한 연애관은 무론 내가 동경 M중학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온 영향이겟지마는 조선 사람들이 남녀관계를 한 유희로 향락으로 알고, 더욱이 남자가 여자를 정욕을 만족하기 위한 한 기구로 아는것에 대한 반감도 될것이다.

나는 첩을 얻는것을 증생적이라고 공격하는 글을 여러번 썻다. 소위 오입이라는 것을 가장 추악한것이라고 믿엇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처럼 깨끗하엿느냐 하면 그렇다고 할 염치는 없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마음은 불결하더라도 언행만이라도 깨끗이 해보자, 하는것이 소원이엇고, 또 이렇게 애써가노라면, 즉 결을 깨끗이하기를 애써가노라면 속까지깨끗해질 날이 잇으려니, 정말 아침 햇빛과 같이 맑고 밤새에 쌓인 흰 눈과같이 깨끗하게 될 날도 잇으려니 하고 바라고 잇을뿐이엇다.

내가 젊은 두 여성과 한집에 오래사는 심경도 이러하엿다. 결코 내 마음에 풍파가 일지아니하는것이아니엇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의 기회로 믿엇다. 북간도 사람들이야 무엇이라고 하든지, 예수를 잘 믿노라 하고 교회에 직분까지 가젓다는 K학감, Y학감이야 우리 셋을 두고 무슨 추악한 이야기를 지어내든지, 나는 하느님의 앞에서와 두 여성의 앞에서 결으로만이라도 깨끗함을, 의로움을 잃지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싸우는것이엇다. 나는 이 싸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쇠약함을 느낏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명예로운것으로 생각하엿다. 언제 예수께서 오시더라도 언제 죽은 K의 혼령이 오더라도,

『나는 두 여성을 깨끗하게 보호하엿소』

하고 대답할수잇는것만이 내 소원이엇다. 이 심경이 『진정』에 반영된것을 더 말할것 없다.

북경의 시월은 벌서 추웟다. 낮에는 볕이 따뜻하지마는 밤이 되면 갑작이 공기가 어는것 같앗다. 은행나무 잎들이 누렇게 되기시작하고 캐수이(街흔 물)파는 고동 소리가 식전이면 유난히 높이 들렷다. 웨덩그래 한 방에 이불도 없이 기밤을 자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엇다. 나는 감옥에 잇는 사람들과 집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엿다. 세상에 추어하는사람이 없도록 할수는 없을가――나는 추어서 잠못일우는 늦인 가을 긴긴 밤에 이러한 생각을 하엿다. 구둘이가 요란히 울엇다. 쥐들이 난동하기를 시작하엿다. 좀어진 창구멍이 회파람을 하엿다. 그러나 나도 마가렵과 엘렌이 미안히 여길것을 두려워해서 춥다는 말도 못하엿다. 그렇지마는 내 몸에 지방이 점점 빠저가는것이 눈에 보엿다. 퍼렁게언 손스등의 피부가 비비면 부서질것 같앗다.

宇宙創造와人生

성경 첫 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기사는 세계 모든 종교의 어느 경전에 서던지 볼수 업슬 만큼 가장 고귀하고 뛰여난 기사이다 그중에는 여러 철인들의 변론한 의견을 소개한것도 업고 또는 성경외에 고대 신화적 창조론들 가운데 나타난 기괴 무리한 기사가 혼동되지 아니한것이다 이것이 저 종교이라면 바루 철학적 답론이나 조잡한 신화론만 녀이는 사람들에게도 미상불 확연한 인상을엇게하엿스니 『인도』에 어떤 『파라문』교인이 성경을 보게되여 창세기 一장 一절을 읽고 크게 느낌바 잇서서 그만큼 가식업시 간단 확실하게 경전의 기사를 개시한것은 참으로 고결 신정한데 대하야 감탄하고 그와 가튼 경전이 또 다시 잇는지 탐구하여 보는 중에 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엇게 되엿다 한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조성하심에 대하야 세가지 사실을 발표하엿스니 첫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셧다는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육체의 형상을 가르침이 아니오 령혼의 성질을 가르침인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로써 한가지 알것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가리 최초의 사람이 최저급으로서 점차 진화하엿다 함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점차 퇴화된 형적을 볼수 잇다 그리하야 퇴화된 인종 중에 최저급자이라도 원악 하나님의 형상으로지음을 받은자이라 진화론자의 리론 순서대로 허구한 시대를 기다리지 안코 저와 당대에 『진리』를 『구원』 엇을수 잇는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전달된 신의 능력을 힘닙어 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다만 성경을 읽음으로 능히 악에서 굳어진 사람의 성격을 변개시킬수 잇다는것이다

들재는 따 우에 모든 물건을 주관하게 하셧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자는 오직 사람뿐인즉 자연히 만물을 주관하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임을 밧을수 박게 업다 우리들은 다 이 만한 지위를 알아 행하는가

셋재는 一남 一녀를 지으신것이다 이 법측은 사람이 처음 조성될때에 정한것이오 만대 불변의 법측인이만큼 오날까지의 세계인구는 어떤 방국을 물론하고 남녀의 수가 비등하야 一남 一녀나 一남 一녀는 된것을 자연률로 증명하고 잇는것이다 인생의 근본 지위를 깨닷고 도리켜 회복하며 경계와 울길제를 별하야 령으로써 울길을 지배하며 남녀의 도덕을 똑바르함으로 비롯하야 인륜을 바루 지켜나가야 할것은 우리『그리스도』교의 경전 벽두에서 부터 가르침을 아는가

果樹苗木
定價表請求次第進呈
平壤府船橋里四七
山口農事部
電話四八一番 振替京城一七五二四番
苹果苗 水蜜桃苗 洋李苗 其他廉賣

創立十五週年記念

創立十五週年間 四海僉位의特愛하옵신 惠澤을蒙하와 日日業務繁榮함으로 今般左記場所로 移轉하온後 誠心誠意土木建築에 精勵코저하오니 倍舊愛顧하심을 仰望하나이다
京城府鍾路通五丁目三五五
土木建築 吳工務所
電話光一九六七番

家庭用 芳香強力殺虫液 キンカトール
猪印

拜啓時下仲春 僉位의 萬福하심을 仰祝하나이다 弊館은 多年 江湖僉位의 深厚하신 愛顧로 因하야 今日의 進展에 이른바 萬一이라도 그惠澤을 報答코저 玆에 諸般設備를 刷新하야 今日부터 營業을繼續開業하오니 倍舊愛護하여주시기 懇願하나이다
朝鮮料理 國一館
電長光六四六 電光四〇七
觀水町二一

外科 X光線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鄭求忠
電話光化門六八五番

美吉……すき燒
봄! 봄! 봄이다
半島에 美味한것이잇다 珍貴한것도잇다
肉은自慢의平壤肉 客室은風流한 數寄屋式料理는自慢의 調理師로 接客人은全部大阪『マルマゲ』로苦待하시든階下客室도完備되엿다、一層、二層、三層全部完成 연못에는『フナ・ウナギ』가헤염을치고노니고기잡이도할수잇서서 손님이낙그신고기로그자리에서맛잇게 調理해드린다
川魚一品料理
鯛ちり、よせなべ料理
ウナギかば燒 平壤肉すき燒 鳥めし料理 天婦御料理 附事食 各一人分
和食定食 一圓 一圓半 二圓
壹園
其他一品料理なべもの (サービス料一割)
宴會、會食에室內의先約도應酬한다
宴會專用電光五三二七 鍾路二(パコタ公園入口)
名物平壤肉すき燒 和食一品料理 美吉 よしみ
電光一〇六七・五三二七番

二日ヨリ五日マデ 四日間公開
階下席 十錢均一
笑王バスター・キートン主演 當り屋キートン
鳥人ハヤブサヒデト主演 男の横顔
大都映畫創立以來の大巨篇 海江田譲二 阿部九州男 松山宗三郎 佐久間妙子 水戶浪士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第一回入替ナシ)
永樂町 本三〇一四 中央館

四月一日브터萬人、望의名畫封切
米國위이스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匠엘마ㅣ그리후른氏大作品! 가스다猛將軍 후랑크마그그랜氏主演 낟시가스월嬢助演
코렴비아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푸로와이루스氏 鐵拳熱血紳士 재ㅣ무스단氏主演 준그래비ㅣ스嬢助演
OLP超特作發聲! 山本嘉次郎監督作品! エノケンの千萬長者 榎本健一氏主演 椿都枝 二村定一 弘川光子 助演
貫鐵町 電光二九五 優美館

平南의代表的 災害地인寧遠郡 火田地帶民의生活

德川支局 一記者訪問記

「농업국」이란 칭호를 가진 이강산을 격파할듯이 엄습해오는 만은 수년동안의 풍、수해로 인한 재앙(災殃)은 이땅의 수억이란 재물을 눈깜짝에 휩쓰러냅새 버렷고 수만백성의 생령을 비명속에 묻질러 버리게된것이다

이 불의의참변을 미연에 방지코저하는 정책으로 위정당국으로 부터는 치산치수(治山治水)계획을 내세우고 전조선의 록화(綠化)운동으로 소위 독라지(禿裸地)운운의 적산(赤山)박멸책을 실시하게된것이다。

그런데 또한 이 치산계획과록화운동의 배수진으로 삼림보호령(森林保護令)이란 철조망을 느려 노앗고 이 철조망에 부닥처 곤란을밧는 계상의 출현자가화전민(火田民)이란 산림지대의 거주민인것이다 이에 기자가 그현상의답사한바를 대강이나마적으면 다음과갓다

天惠못밧는山間地 風水冷害三年을繼續 —箇中에도寧遠郡가장尤甚—

"화전민"! "화전민"이란존재는 농촌정화(淨化)에 틀림업는 오예물(汚穢物)인것이요 "농업조선"의불치의 암(癌)인것이다。그럼으로 "화전민"에게 산간지대의 "깽"이라는 락인을찍고 밀림(密林)왕국의폭군 네로시하는것이 또한『화전민』인것이다。만성 고질에가까운이『화전민』퇴치방법은 당국의 크나큰 두통거리로 그야말로 일대부심사인것 만도사실이다。

농림당국을 좌불안석케하는전조선 각산림지대에 산재한『화전민』은 평남 산간부(山間部)에도 그수적지안케 만히 뿌리박혀잇는바 평남『화전민』의 총수 십사만오백십삼인이나 되는 전부가 영원 덕천 맹산(寧遠 德川 孟山) 등지의 벽지에 잡식하고잇는 것이다。

천혜(天惠)를 밧지못하는『화전지대』에는속칭지나온삼년간(그실은오년간) 계속하야 풍、수、랭(風水冷)의 재해를 바더왓는바 그실 미증유의 참화로써가련한 『화전민』들을 황량한『화전지대』에서까지 모라내고 쪼처보내게 한것이다。

산(山)에서 나(生)서 산에서 자라고 다시 산속에 무덤(墓)지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관념을 가진 토착(土着)『화전민』들도 천재(天災)의 위협을 밧게되여 생의참패자로서 영락한데 또다시 보림(保林)의 계엄령을 당하구보니 여지업시 생존경투에 녹아웃 이되구만것이다。

계속된 삼년간의 재해가 지나고 작년만은 "화전지대"에도 풍년?이 왓다고 햇나。

그러면 그들은(火田民)과연폭풍일과후 무풍지대에 들엇는가?

어느날 기자는 재해지의 그뒤소식을 차저서 "화전지대"의 생활진상을 답사코저 여로(旅路)에나섯다。

목적지는 평남의 최극 북단(北端)벽지로 순전한 화전군(火田郡)이고 피해의 중심 지역인 영원(寧遠)군을 찾기로한것이다 영원의 지형은 전체가 고원지대로서 동으로는 조선제이고산(高山)인 표고 이천일백팔십 사미(米)의 소백산(小白山)이 장진(長津)과 접경을 일우엇고 북으로는 이천삼십사미의랑림산(狼林山)맥이 평북과의 경계선을 지엿는바 검산령(劍山嶺)황처령(黃處嶺)등 일천미내지 이천미의 대소산맥이 영원전군을 형성지여잇서 영원은 글자그대로 산악지대요 화전부락인 것이다

전군의 총면적 일백오십육방리중 농경가능지(農耕可能地)로는『화전』까지 합하야 이만오천정보박게 안되는것이다。

×

『화전』이라는것은 심산유곡이나 산상봉에 무성한 수림(樹林)을 찍고 잡초 욱어진곳에 부대이(山火)를하야 그불탄자리에 농작을 하는것인데 원악 험산이라 토(土)보다는 돌밧(石田)으로 되여잇는것이니 기경(起耕)도하지안코 부대이를 친자리에 묘종(苗種)만하고 비료도 내지안코 풀도 뜻지안코 만흔 수확을 거둘수잇는원시농(原始農)에 가까운 농사방법인것이다。

『화전』부락은 고원지대이라음력유칠월까지도 처처에설악백봉(雪嶽白峰)을 볼수잇스며 삼복더위에도 무명의복이 아니고는 지날수 업시 기온이참(冷)으로 여름이 경영하야지 조금만 비가 와도 결실치 못하고 냉해를 밧게되는 천연적 재수지(災受地)의 호(好)조건을 구비한곳이 "화전지대"인것이다。

세칭 "과지 삼년간 계속된 재해"란것은 그실은 소화유년도부터 약간의 흉작을당해 왓섯는데 소화팔년부터 구、십양년을 계속하야 완전한 풍수냉의 재해를 입어 농작물이 전멸상태에 빠지구만것이다。

"화전지대"의 농작물로는마령서(馬鈴薯)와 연맥(燕麥)이 최다요 그외극소수의 옥수수(玉蜀黍)가잇섯다

재해이전(災害以前)에도 화전민의 상식하는 곡량으로는 감자、귀밀、강량이등속이엿는것이다

소화팔년이후 화전지대를 습격한 미증유의 재앙은 유사이래 처음보는 대참변을 일우엇는데 마령서、귀밀은 전멸되엿고 강량이는 알을 맷지못한채 농황은 무참하게도 적지화(赤地化)하고 만것이다

災害의繼續으로 救濟의손도끈처

이리하야 그들은(火田民)잔뼈가 굵도록 자라오든 정든 고소(古巢)를 버리고 수림사이를 쫏겨나서 그들의 유일한 생활도구요 생활전선의 무기인 "호미"와 "낫"을 동댕이처 버리고 낙산(落山)하야 철도공사장으로 금광판으로 "토착농"으로 부터 일용(日傭)노동자로 전직하게 된것이다

이제 소화구년도까지의 당국조사에의한 요구제자(要救濟者)총수를보면 이천오십구호(戶)에 일만오천사백팔십오인이란 실로 가경할 수자인것이며 다시 구년(舊年)정월(正月)을 헐버슨 알몸으로 굶주린배를 움켜쥐고 무참하게도 월년(越年)하게된 이재민(罹災民)만도 이천삼십육호에 일만삼백구십인이란 수자는 듯는자로하여금 실색할 형편이고 전률을 불금케하는 사실이다。화조월석에 한운야학(閑雲野鶴)을 벗삼아 피와땀의 결정으로 생명만을 지속해오든『곡간(谷間)』의 근로인 그들에게 이불의지천변으로 인하야 아비규환(阿鼻叫喚)의 비절참절한 생지옥을 전개시켜노은것이다。

이러케 화변(禍變)을 당하게된군당국으로 부터는 대경실색하야 구급의 손을 펴치기시작햇나。각면에는『녕해이재민구제회』를 조직한후 이재민의 참상을 실지조사케하는일방 전조선이백유여 각부군 도(府郡島)의 수양단지부와 교유회에 참상을 애원간청하엿고 도회의에 호소하야 영、덕、맹(寧德孟)삼군냉해이재민구제회를 조직케하엿는것이다。

그리하야 당시 하야(河野)내무부장이 현지시찰을 하게되엿슬때 꿈에도 생각못하는 이재민의 비참한 생활이면을 보고 너무나 한심하야 말한마디업시 침묵가운데 도라가서 전국적으로 구제책을 강구하게된다는것이라한다。

×

일이삼회로 분하야 재지여구제품이 배급되엿는데 일차 이차는 석탕과종곡(種穀)으로자차 차는 현금으로 분배되엿스며 그돌재 구입으로 연원이 진남포 평양등지로 출장놀가는 동안 철도국에서 무료로하는동을은 자못 컷섯다한다

구제품 배급외에 구제공사를 실시하엿는데 그세측은 다음과 갓다

工事費 一二、五五〇圓

受救者總數 六、六二八月 三三、二二七人

×

그러나이제는 일시 치열(熾熱)튼 구제의손길도 이미 끈허진지오래다。

雪上의加霜格! 野生草까지凶作

그러면、헐버슨 이재민들에게 생활안정의 날이 온셈인가? 이제 그진상을 좀더세밀히알어보고저 화전군 화전면(面)이라 할수잇는 성룡면(成龍面)을 차저갓다。

읍에서부터 산과산사이를 점점 올라가게되는것이 영원─함흥간의 이등도로선인데 질주하는 자동차속에서도 기자의 눈에 띠우는 것은 좌우엽흔바위(岩)돌이나 멀─리보이는층암절벽에 굵다라케 씨워잇는『火田禁止』『山火注意』『盜伐嚴禁』등의 글자들을 수업시 볼수잇는데 이래서 과연 화전군인가 그럴듯한 화전지대 풍경이엿나。다시 중흥서 성룡까지도 보도 유리를 것는 동안 길엽(路傍)눈에 띠우는 나무마다『신개간엄금』이란 붉은표와『허가업시 나무를 하고 낙엽을 긁고 풀을베고 불을노코 표식을 옴기면 십년이하의 징역또는삼백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붉은패(板)의 게시(揭示)가 좁다른산ㅅ길엽 헷속한 나무마다부터 잇섯나。

×

『초근목피로연명』한다는 말은우리가 흔히드럿온 말이다。사실『화전민』들은 풀뿌리와나무껍질 나무열매가 아니엿든면 도저이 사러나갈수가 업섯는것이라한나。

두룹 도토리 둥굴레 웡 길장구 고사리 마할등을 주로태해서 상식하엿스나 재해삼년채인 소화십년도에는 야생초까지 흉작으로 좀처럼구할길업시 되엿스니 그야말로『설상가상』격이엿는것이다。

어린이 늙은이들이 떼를지여 숫사이로 배회하며 닥치는대로 잡초를 긁어모아 드리게되엿다

흉년이들면 서당ㅅ간과 도야지우리가 빈다는 속담도 잇지만 화전촌에는 도야지우리도시당ㅅ간도 본시부터 업섯스니말할배 못되거니와 야생초까지흉작이고보니 멧즘생들도 아사(餓死)의 지경에 이르렀든 것이다

꿩 산비닭이기튼 산새류와토기 노루등의 즘생들의 죽어너머진것을 숲속에서 무수히발견햇다는것이다

"산에 여호도 굴이잇고나는 새에게도 먹을 약식이잇다"고 하야 신의허(許)할까지 바든즘생들이 역경에 처하는판이엿스니 하물며 죄의화(罪의華)란사람에게야 그어찌 사경(死境)이 아니엇스랴!

赤手의그들게도 負債는모두잇서

적수공권의 그들에게도 이삼십원 오륙십원의 부채는 어느누구나 다 갓고잇다는사실은그들의 옛날 살림이 유족햇슴을 증명함이라한다。

지난 날에는 무주공산이라하야 신경지(新境地)를 개척하고 안도의땅으로 정주코저 차저왓든 신국토가 "삼림보호국"의무서운 방어선(防禦線)이잇는데또한 엉친데 덥치는 격으로 하늘마저 그들을 동정하지안는다

재해전에는 성룡면『길대리』만보드라도 호수가 지금은 팔십여호이든 사실로 기자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헤여본 폐가(廢家)가『길대리』에서만 무려이십여개소 엿나。

몰상당이 문허지고 초가녕이 내려 안즌집 흙은 섹찬 산바람에 부닥겨 거츨게되여 옛날의 이 서서 칠목을 직히며옛날의 그순박하든 주인을 그리워하는 듯

『사천은 의구것만 나의주인어디가구 도라올줄 모르는냐?』하고 소리치며 달려나오는듯。문허진 엣터전 쓰러저가는공가(空家)는 너무나 쓸쓸하고처참한자최로써 기자로하여금 몸서리를 치게하고 비분에 넘치게하엿나。

父子間演出되는 放火犯爭奪劇

성룡면내에서 산림령위반으로 검속된 일년동계가 일백여건인바 사십호미만의『길대리』에만도 현재 피검자수가 이십명에 가깝나한다。

병아리를 노리는 독수리가티 화전민을 감시하는 눈초리는무섭고 말굽은 날카로우나『화전』에서『화전』을 못하고는 도저히 살수업다는것이다 먹고 살기위하야 감시의눈을 피해가며 부대이를 치는것으로 불을리는때는 한사람의 책임자가 나서 고생을 말고 다른사람들을 편이 살게 해주는두터운 의리를 갓고잇나한다。

『젊은네가 잇서야 식구가 살나지안켓는가?』하는 핑계를 가지고 늙은애비는 기고생을 살라고하면『아버지가 어떠케요』하고 종시듯지 안코 나서는 아들 이러케 부자간의『방화범』쟁탈극을 연출한다는말은 듯기만해도 가슴저리는 일인것이다。

榮養不足한그들에게 追問할勇氣내업서라

기자는 여러집을 차저다니며 그들의 생활형태를 엿보고 도 탓나

문어저 업서진 옛십터를 지나고 쓸쓸한 공가를 바라보며 어린사녀와『며편네』만이 오숫 컴컴한방속에 유폐(幽閉)된듯한 집들을 차저보기도햇나 남생네의 대개는 금낭이나철로판으로 가지 안혓스면 영림창 처차관(木材運搬)으로 갓다는것이다。

어떤집에서는『굴읍(窟邑)갓서요』하고는 꺼질듯이 긴─한숨을 쉬는데 끌갓다는말은 부대이를치고 경찰서에 갓다는말이라한다 그들이 끌가는일로는 그일밧게 업다는것이다。

이재민의 집을 찻고 좀세밀한 문답을 하고는 시폇스나영양부족이 아니고 영양전무로피ㅅ기업는 그들의 얼굴을보고 또는 처참하기 비할배업는 그들의생활을 잘알면서 무엇이라 할말이업서 길을 금이 돌이군한것이다。

×

이재민들은 지금도 먹을것을 먹지못하고 입을것을 입지못한채 근근 지나간다。지금의 먹는것으로는『감자』가 아니고『감자껍질(皮)』이며(농매를내서팔게된ㄴ)강냉이알이 못되고『강냉이속』조(粟)겨등속의 죽을쑤어먹고 눈보래셋찬 산악에서 사는그들은 누덕이옷도 흡족치못하고뻘거숭이채로 과동할것이나 맛찬가지신세라한나。

언제나 부녀들은『치마』를입는법고업고 여름한철은 소년소녀들의 뻘거숭이떼가 산속에서 풀을뜻는광경은 토인(土人)생활을 방불케한나고한나。

기자는 이상 한수일의 시일을 소요하면서 이재민의 실생활을 대강대강보아왓다。대강본사실마저 대강으로나마 기록못하게되는것은 기자의 부끄러운 일이다。

赤地의飢饉同胞 赤誠으로救하자

이로써 금번 답사보고를 끗낫(閣筆)의 문견을 바라마시안추려할데 지금은 당국에서 까지 방임 해두는 수만의 리재민의 구제문제를 다시사회적으로 관심하고 궐기하도록 여론화하고저한나

『리재민을구(救)하자!』

『재지의 기근동포에게 적성을보내라!』

일반사회 독지가 자선가의궐기를 요망하는 동시에 동족여 끄르도 당국자에게 일언코저함은 군수경기(軍需景氣)의팽창과 금년도 하천개수 사방공사등의 예산이 평남만도 륙백만원이라하며 그에따라 다량의로동자가 부족할것이라 하는것이니 적절한수시자로 나타나잇는 리재민들을 계획적으로 이주시킬구체안을 강구하기바란나。

名節때에쌀밥 휴! "嚴禁"이웬다

면장을 차저 일석화를 주고바들때 명절에는 쌀밥을 먹는냐 고 못는 기자의말에 엄금이웬다。쌀밥을 먹다니 하는대답은 명언이엿고 또S공립보통학교를 차저 결식(缺食)아동의 상황을 물엇는바 언제는 결식이 아니엿기에 새삼스러이 결식을 논하겟습닛가 하는 선생의 대답 또한 옷지 못할 에레지가 아니엿든가?

기자의 눈에 보이는것 또한 듯는말 어느하나 단장애곡 아님이 업섯스나 본 그대로 드른그대로 점철(點綴)하고 표현할재간을 갓지 못햇슴이 자신의 야속스럽게느끼는 바이다。

재해 초년인 지난 소화구년도 춘경기를 당하야 그래도 또다시 군에서 종곡을 어더가지고 농경을 시작케 되엿슬때 며날직 굶는몸이라 하도 기진하고 맥진하야 호미를 잡을기력조차업서 일을하다말고 넘어진 주저안게되는일이 이삼려에 끈치는일이 아니엿다는것

갈곳업는 몸이면서도 지향업시 떠나가는 유리군(流離群)의 속출로 공가가매일 느러가든사실

구걸(求乞)로 마을을 배회하든남어지 무심한사파를 저주하고 구천(九天)에 신원(伸寃)을 빌든채 루강자살을감행한 칠십옹(翁) 신태식(申泰植)노인의자살등 후일담(後日譚)

사십장정의 철룡가든놈도 굶주린끄테몸한복음 마실기력업시 실개미소리만한 숨(命)길이 맥히려할때 응당 자기뒤를밟게될 가족의뒷일이 가슴에맷치게되여 풀뿌리 삶는 솟에다 약초(毒草)집어너히 마츰내 칠가족이 일시에 몰살케된 참사──등등은 길대리(吉垈里)구장 박재근(朴在根)씨에게서 눈물어리고 한숨지워가면서 듯겨준 지나간 자최의 잇지못할 토막 토막의 애화인것이다

"동정(同情)민들간에 서로돕(助)겟다는 동정심가진사람은 업섯습닛가" "주책업는 기자의질문에 "뉘래 뉘굴돕소 너、나할것업시 다─도음을바더야할 판국인데" 집책자의 말문을맥히게하는 명답이엿다 재해이후 젊는장정들은 죄다돈버리를 떠나가고남어잇는사람은 유로(幼老)부녀자들뿐이라한다 돈버리를떠난 "남정"에게서 돈은오지안코 몃달이 지나간뒤 불구의 몸이되여 도라와 극적신─을 연출한일이 한두집에 생긴일만도 아니라한다

그들의結婚은 勿論賣買制度

"화전민"의 결혼제도는 두말할것업시 매매결혼인바 남자는『색씨』어들 미천을 벌고자 머슴사리로 착실더로 청춘의 홍안이 보기실케 변해지고 근삼십이 갓가워서야『색씨』를 사드리게되는 반면에 녀자는 집안살림에 크나큰미천(資本)이 되는것으로 십삼사세면 훌륭한 상품으로 시장에서 가격을 론난하는 상품과가티 팔리워서 시집이라고가는것이다 이리하야 가난한백성 몽매한 족속들의 원시적결혼제도는 새로운 인생비극을 저내는 실례 또한 비일비재인것이라한다

"화전민"의 거주하는 가옥이란것은 후면벽(壁)을 돌기담으로 쌓코 좌우측면과전면은 돈사(豚舍) 모양으로 나무를 건너대고 흙을 발라부치게한것이다

가장집물 로는 부엌을 보니 한쪽에떠려진 물동이가잇고식기 멧개는 고양이발투구리 가튼 목기(木器)들뿐인것이다

가옥의 매매(買賣)는업다 가면 그냥 내버리고 가고 오는사람 또한 뷘집을 차저드는것이라구한다

이들 생활에는 돈 한푼만저보지 못하게 되여잇다

품파리 일을 가드라도 곡식으로 타다 먹는것이닛가 십오전이 업서 호렴(鹽)한되박을 못사드리고 삼사전을 작만못하야 실(絲)한채 살수업슴이『화전민』의 생활인것이다。

아즈까리기름을 맨드러등유(燈油)로 사용하는 집은 그래도부유한 살림이고 개화된정도라할것이고『성냥』대신『부시끼』를쓰고 윤등을못쓰고 솔깡불(松火)을 켜는것은 기자도 처음보는봉건시대의 유물이엿다 집집마다 방한구석에 솔깡불의 장치가잇는바 내(煙)를뽑기위한 창(窓)으로 부터는 언제나 눈보래가 날려들편이다 산또산곳이업는 골작이(谷)해는 반나절이되여야 소사난다 낫잠한잠도 채못자서 넘어가 버리는 것임으로 산곡에는 언제나 태양을 보지못한다

고 때(時)도 짐작못하고 답답닭도한마리 못치니 계명성을듯지나는사정이다

기나긴─겨울밤 눈보래의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고 문허진 들창으로 매섭게 랭기가숨여들게 선잠에서 깨여난그들은 긴 하편과 함께 방한 복판에부튼『화로』불을 헤그러본다 불(灰)의 쓰러지고 덜쓰러진것을 게량하야『자정』이니 삼경이니 하고 때를 판단한다고한다

계명성 절무한『화전지대』에는『화로』가『時의鐘』인것이다

『화로』또한 원시적 유전물인것으로 방복판에다 원(圓)형흙홁을발러감으로이동(移動)못하는『시의전령』『토(土)화로』이다

『화전민』의 교육、위생 기타(오락)(도박、술)등은 전혀논할여지가 업다

소화구년도에 개설한 공보교(公普校)가하나 잇스나 성룡면총인구 삼천삼백륙인에 생수는 구십삼명인것이니 가이짐작할일이고 학교에서는 월사금(月謝金)삼십전(三十錢)을 현금으로못하고 "잡초""시탄"으로바더드린나고한다 구제금배부시 전군구개공보교에만 오백이십오원을 지출하야 학용품과 월사금을대납한일까지잇다 궁벽산촌에의료(醫療)기관이 시설되엿슬리도업지만 혹잇다손치드라도 그들의 생활이 병드러죽는한이 잇서도 수중무일푼으로 그엇지 의료기관을 리용할수잇스랴!

公州 教育大講演會

▲時日 四月九日午後七時
▲場所 公州劇場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主催 公州商業繁會
◇後援 朝鮮日報公州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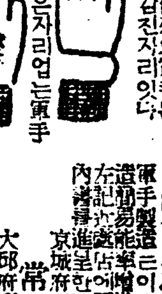
清津 家庭料理講習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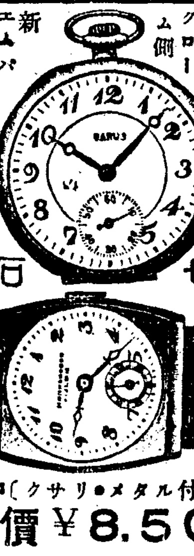
▲日時 四月六、七、八、九四日間下午一時
▲場所 第一公普校講堂
◇主催 第一公普校父兄有志一同
◇後援 朝鮮日報清津支局

地方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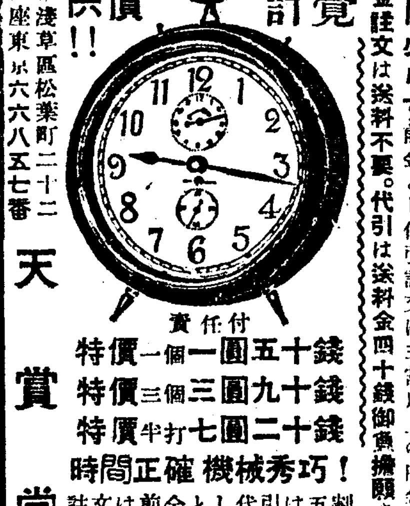
▲上野直一氏(榮州警察署警務主任)新任人事次本社榮州支局來訪
▲金東順氏(警部補)新任人事次本社龍岩浦支局來訪
▲朴鳳翰氏(院場郵便所長)新任人事次本社漢川支局來訪
▲中山義作氏(前金村公普校長)今般退官人事次本社牧山支局來訪
▲鄭濟乾氏(雲東普校訓導)維竹普校榮轉人事次本社古場支局來訪
▲金尙云氏(雲東普校訓導)新任人事次同上
▲朴起燃氏(崇德普通學校訓導)新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金□耿氏(私立得信學校長)新任人事次本社鎭南浦支局來訪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軍手製造
이은자리업는軍手
從來의軍手는 갑진자리잇다
이은자리업는軍手 감지지안엇다

製造家募集
軍手製造는이은자리업는軍手에限한다 製造機能率增進收入多大希望者는左記에照會하면無代로軍手製造案內書를進呈한다
京城府西大門町一八四番地 常盤商會京城支店
大邱府壽町三九番地 常盤商會大邱營業所
東京市神田區五軒町九番地 常盤商會本店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卒業。入學。昇級等の記念には
是非弊社の時計を!
精工舍新製品景品附大特賣!!

新エムパ クローム側
十五個年保險證進呈
景品は右の品買上一個毎に弊社發賣第十五號卸特價一圓六十錢の萬年筆一本宛進呈!(左ノ圖ハ景品實物縮寫)
懷中(クサリ・メタル付) 特價¥8.50
丸形・變形(同値腕皮付) 特價¥8.50

註文は必らず前金とし代引註文は三割以上の内金を要す 前金註文は送料不要。代引は送料金四十錢御負擔願ます

目覺時計 特價提供!!

責任付
特價一個一圓五十錢
特價三個三圓九十錢
特價半打七圓二十錢
時間正確 機械秀巧!
註文は前金とし代引は五割以上内金を要送料實費加算
東京市淺草區松葉町二十二 振替口座東京六六八五七番 天賞堂

문둥병
으로數年間苦生하든사람은緊急히 昔來의皇漢家傳藥이잇스니 服用하고저希望하는사람은便紙로注文하라 病理說明書와數多服用者의全快感謝狀添付無代送呈한다
大阪市新川三丁目 大福堂

淋疾 特製ラクリン 락구링

治療할 時期를 遲滯하면 一生不治합니다 子孫을 爲하야 國家萬代의 由緒를 爲하야서도 只今 곳 本劑를 服用하야 根治하시요
本劑는最新한 淋疾消渴의必治劑임니다 特製락구링은 참으로 淋疾患者에게는조흔 救主임니다
急性・慢性・惡性・淋疾
消渴●……藥効確實
定價表 四日分金壹圓 九日分金貳圓 十四日分金參圓 廿五日分金五圓
キキメ第一 國用第一
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日・英・米・獨・佛・特許
器械鍼療法
奧材療法 朝鮮學院
◎實地講習科 ◎通信講習科 ◎速成講習科
學則開業文獻送呈(郵券四錢要)
毎月五日開講
◇特典─修了者全國無驗定開業ヲ得 開業必要關係書類完備
◎所在地=京城府大和町三丁目五五番地
◎本院 大阪市西區江戶堀下通五丁目 電話土佐堀三八四三番

近代人必需貴重品を紹介す
調毒防產 サック 大し 價出 原賣
(A)ラツキースキン 一打……¥.50 三打……¥1.20
(B)ナナースキン 一打……¥.70 三打……¥1.80
(C)コントラスキン 一打……¥.90 三打……¥2.40
(D)アニマルスキン 一打……¥1.00 三打……¥2.80
(E)ダイヤスキン 一打……¥1.20 三打……¥3.20
(F)フイツシユスキン 一枚……¥.90 五枚……¥4.20 一打……¥9.00
註文ハ必ズ前金註文ニ限ル。代引註文ハ謝絶ス 送料金十錢也
Ⓑ ビオス商會 東京淀橋上落合二ノ六七 振替東京一一二七〇〇
感じがよく絶對安全●性病豫防產兒調節に

清導補腎丸
生殖器強大靈藥
中國高官大家秘藥 瑞康士先生 四十年苦心大結晶品
早漏防止劑

男子生殖器短小、早漏、遺精、夢泄、陰萎不起、起而不久等에特効 天下無比인中國大名藥 生活滿足其効如神
價! 試用分一、五〇 十五日分三、〇〇 三十日分五、五〇
하루三回 價金一圓五十錢 先金注文送料稅金負擔
滿洲國安東縣財神廟街中市三八 旭橋局私書函第二十四號
太星莊藥品部

氣分도頭髮도잘드러해지는
洋髮香油 ランラン 란란

東洋劇場
卅一日封切(五日間) 毎日三回 十時半 一時半 六時半
今週中花王石鹼五個買上하시는분은無料로入場하실수잇습니다
◇와ー너뿌러더超特作映畫 에드와ー드、G、로빈손主演 윌리암、카이리監督 彈丸이냐投票냐!
快刀亂麻를끗는듯한男中豪傑의悲壯한最期! 깽映畫로서白眉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헨리、킹、監督 와ー너ー박스터 카ー넬ー 케이너 主演 再逢春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畫 名匠헨리킹의純情篇 가난한處女에게비로소차저오는우슴에어리삭인봄소식! 高野由美、江川なみ主演 花なき春の歌 봄이오건만꽃조차볼수업는종시도會裏友情의哀歌!

劇團藝術座公演第五週 三月二十八日부터
悲劇 哀怨草 四幕 宋影作
海棠花가티곱고純眞스런海女福順의가슴속에도새어的哀愁! 父母가定해준約婚의쇠사슬! 고스스로새로운運命에 굿세이거려갓나!
漫劇 南宮春作
悲劇『古都의밤』三幕 次週豫告 李雲芳作
웃지안코못견딜抱腹腰折의大爆笑劇! 어느作家의스캔달 四幕

團成社
四月一日부터六日間特別公開 四月第一週부터第二週六日까지는 短期二日間式交換上映!
◎每日晝夜二回上映 始映夜七時 晝一時 大衆料金 十錢均一
●유니버ー샐映畫特選大會● 四月一日ー二日上映 全發聲日本版 紳士渡世 다크라스・페아방스・쭈니아主演
●朝鮮映畫 江건너마을 尹逢春・文芳蘭主演
●全發聲 實寫・漫畫 三日ー四日上映 音樂映畫大豪華版 ▲슈바리에의巴里ッ子 모리스・슈바리에主演
全發聲日本版 ▲이세사람(この三人)
全發聲現代劇 五日ー六日上映 ▲水兵の母
全發聲日本版 ▲맞음히섯지요네(仰言いましたわね)
全發聲日本版 ▲날개의노래(羽のはえた唄)
全發聲現代劇 ▲ホロリの涙

往十里町 光武劇場